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 Let's Go!

#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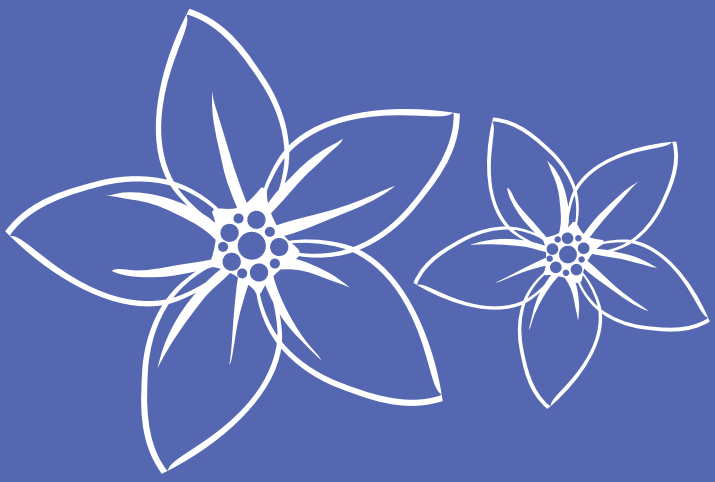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ORLD FRIENDS KOREA

Let's Go!

# 필리핀



# Contents


제1부 나눔하나

##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나라, 필리핀

PART Ⅰ. 파견국 개황 : 필리핀은 어떤 나라일까?

1. 국가개요 006
2. 일반 008
3. 역사 010
4. 정치 012
5. 경제 013
6. 사회 014

제2부 나눔둘

## '함께'라는 기쁨, 필리핀 생활 백과사전

PART Ⅰ. 정착 관련 필수 정보

1. 50kg 맞추기 020
2. 열정을 가득 채우기 024

PART Ⅱ. 이렇게 살면 나도 필리피노

1. 필리핀을 이해하자 026
2. 대중교통 이용하기 030
3. 필리핀의 이동통신은? 033
4. 필리핀의 인터넷은? 035
5. 필리핀의 우편은? 038
6. 필리핀의 은행은? 040
7. 집은 내 손으로 고르자! 043
8. 물가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 048
9.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 052
10. 지역별 필수 생활언어 053

PART Ⅲ. 체험@필리핀 현장

1. 긴급 상황 시 066

2. 의료기관 이용방법 067
3. 여가활용 070
4. 현지유명업소 073
5. 요리법 078
6. 필리핀의 과일 086
7. 유용한 사이트 089
8.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맺기 090
9. 기타 092

제 3 부 나눔셋

## 같이 웃는 즐거운 내일, 필리핀 즐기기

*PART* Ⅰ. Phil 좋지 아니한가!

1. 마닐라(Manila) 100
2. 세부(Cebu) 106
3. 그 외 지역 111
4. 지역별 피에스타 115

*PART* Ⅱ.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1. Phil 봉사단과 교류 120
2. 그럴 수 있어~ 121
3. 선배단원 활동 수기 123

제작진 소개 130

참고문헌 및 자료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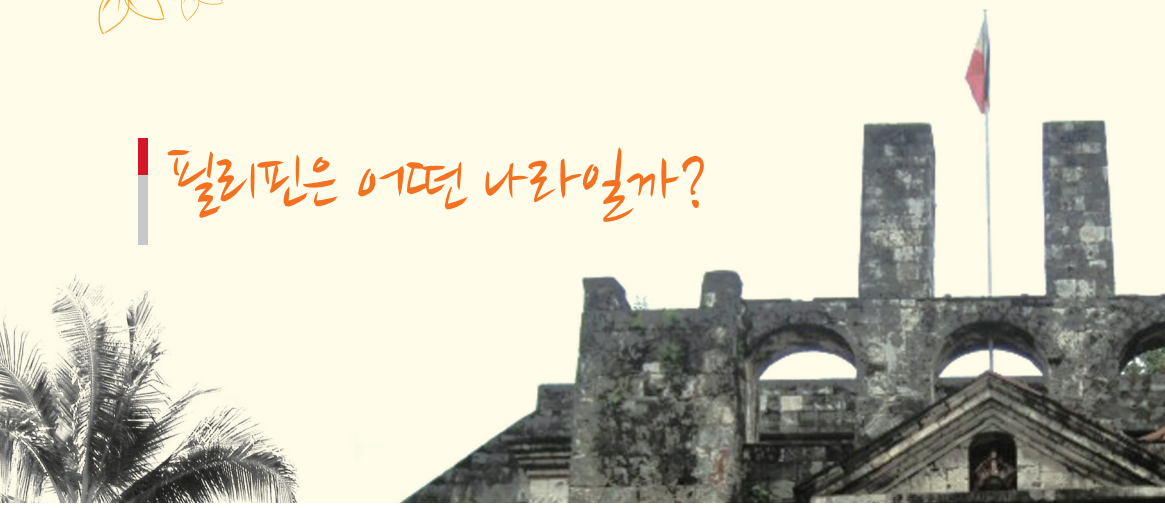
# 제 1 부



# 나눔 하나

동서양의 문화가 혼합된 나라,
필리핀

PART Ⅰ. 파견국 개황 : 필리핀은 어떤 나라일까?



# 필리핀은 어떤 나라일까?

## 1. 국가개요

❶ 국명 : 필리핀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❷ 정부 형태 : 대통령제, 6년 단임

❸ 의회 : 상 · 하 양원제
- 상원 24석(임기 6년)
- 하원 287석(임기 3년)




❹ 군대 : 11만 4천 명
- 육군 7만 7천 명, 해군 2만 2천 명, 공군 1만 5천 명

❺ 면적 : 300,400㎢(한반도의 1.3배)
-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 루손(104,688㎢)과 민다나오(101,999㎢)가 총 면적의 65% 차지

**❻ 기후 :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연평균 27℃)**

- 크게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나뉨
- 태풍 · 지진 · 화산 분화 등 자연재해 빈발

**❼ 1인당 GDP : 2,011달러(GDP: 1,999억 달러)(2010년 추정)**

**❽ 경제성장률 : 7.3%(2010년)**

**❾ 교역 : 1,118억 달러(수출 512억 달러, 수입 606억 달러)(2010년)**

**❿ 인구 : 9,800만 명(2011년 추정)**

- 인구증가율 2.16%
- 주요 도시 – 메트로 마닐라(1,110만 명), 세부(100만 명)

**⓫ 평균수명 : 남자 66.9세, 여자 72.2세**

**⓬ 인종 : 말레이계가 주를 이루며 중국, 미국, 스페인계 혼혈 다수**

**⓭ 종교 : 가톨릭(83%), 개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 흰색은 평등과 우애, 파란색은 평화 · 진실 · 정의, 그리고 빨간색은 애국심과 용맹을 각각 상징한다.
- 삼각형 안의 노란 태양은 자유를 뜻하며, 태양의 여덟 갈래의 빛은 스페인의 계엄령에 최초로 대항한 8개 주를, 세 개의 별은 필리핀의 커다란 세 지역인 루존(Luzon), 비사야(Visayas), 민다나오(Mindanao)를 의미한다.



필리핀 국기

**⓮ 주요 언어 : 영어 및 타갈로그어(Tagalog)**

**⓯ 외세지배 : 스페인(1571~1898), 미국(1898~1942), 일본(1942~1945)**

- 2차 대전 후 1945년부터 미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다가 1946년 7월 4일 정식 독립
- 독립기념일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898년 6월 12일

## 2. 일반

### ❶ 위치

마젤란이 1521년 비사야스(Visayas) 군도의 사말(Samar)섬에 상륙한 이후 1527년 빌라로보스(Villalobos)가 민다나오(Mindanao)를 경유하여 레이테(Leyte)까지 탐험, 정복하였으며 당시 스페인 국왕 필립(Philip II)의 이름을 따서 필리피나스(Las Islas Filipinas)로 명명하였다. 이때의 명칭이 오늘날의 국명인 필리핀(Republic of Philippines)으로 발전되었다.

필리핀은 약 7천 백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섬은 이름 없는 암초이거나 산호초이고 사람이 정착하고 있는 섬은 880개 정도이다. 북부의 루존과 남부의 민다나오섬이 전체 면적의 65%를 차지하며 중부 비사야스 군도의 세부, 파나이, 사말, 민도르 등 11개 주요 도서가 더해져 총 국토 면적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지형은 필리핀의 최고봉인 아포산(2,954m)을 비롯하여 미국의 2배가 넘는 복잡한 해안선이 특징이다.

필리핀 군도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하여 화산이 많고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여 개 이상의 화산이 산재되어 있다. 이중에서 마욘(Mayon), 탈(Taal) 등 20여 곳이 활화산이다. 특히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가 지나고 있어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해안지대에는 곳곳에 산호초가 발달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연의 하나인 케이프 존슨(Cape Johnson)와 엠덴(Emden) 해연이 있다. 화산작용에 의해 토양은 일반적으로 비옥해서 연 2~3모작의 벼농사가 가능하나 화산대가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이 높고 가파르며 하천이 깊고 짧아 국토 면적에 비해서 평야가 협소하다.

### ❷ 인구[1)]

필리핀의 인구는 근래에 와서 증가율이 경감되었지만 지난 1995년 68,616,536명에서 2000년에는 76,506,928명 그리고 마지막 인구조사가 있었던 2007년에는 88,566,732명으로 연간 약 2.16%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현재 9천 8백 만여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다.

### ❸ 기후[2)]

필리핀은 고온 다습한 아열대 계절풍 기후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일반적으로 일정하며 기본적으로 건기(12~4월)와 우기(5~11월)로 구분된다.

필리핀의 연평균 기온은 약 26~27℃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기온차가 크며 지구 온난화 현상과 맞물려 상승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3~5월은 연중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가장 무더우며 5~11월에는 태풍이 많이 발생한다.

다음은 주요 지역별 기후 특성이다.

- 바기오 지역 : 우기에는 한국의 가을 날씨와 비슷하므로 보온을 할 수 있는 옷이나 전기담요가 필요하다.
- 마닐라 지역 : 대기오염이 심하고 연중기온이 거의 27℃를 유지한다.
- 세부 지역 : 열대 계절풍기후의 대표적인 날씨를 나타낸다.
- 다바오 지역 : 필리핀 최남단에 위치, 적도에 근접하여 연중 무덥다.

### ❹ 언어

1986년 타갈로그어와 영어가 국어와 국가공용어로 지정되었다. 기타 주요 언어로는 스페인어, 스페인어 크레올(차바카노어), 화교들이 쓰는 중국어와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12개의 언어가 있으며 이를 합치면 필리핀 인구의 90%에 이른다. 타갈로그

1) 인구 참고 사이트: http://www.census.gov.ph
2) 기후 참고 사이트: www.pagasa.dost.gov.ph

어, 세부아노어, 일로카노어, 힐리가이논어, 비콜어, 와라이와라이어, 카팜팡안어, 팡가시난어, 마라나오어, 마긴다나오어, 키나라이아어, 타우수그어 등이 대표적인 지방 언어이다.

## 3. 역사

### ❶ 스페인 정복시대(?~1571)

약 3만 년 전 보르네오, 수마트라 등지에서 원주민인 네그리토(Negrito)가 이주 · 정착하였으며, 기원전 · 후 서로 다른 시기에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온 말레이계 이주민들이 독자적인 생활양식을 누리며 정착했다. 이들은 통일된 중앙정부 성립 전에 여러 형태의 부락 공동체(Barangay)를 형성하였다.

특히 14세기 이후에는 이슬람이 유입되어 수루(Sulu) 열도에서 민다나오 섬 일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며 이때 필리핀은 이슬람, 동남아시아, 중국과 인도 등과 문화교류로 인해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 ❷ 스페인 식민지시대(1571~1898)

마젤란 선단이 1521년 필리핀을 정복하여 필리핀인의 저항을 피하고자 주민들을 가톨릭 신자들로 만들며 스페인 왕실의 지배 아래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갔다. 이후 수도를 마닐라에 두고 300여 년 이상 통치하였다.

1860년 스페인 내란 발생 이후 필리핀 내에서는 대 스페인 저항운동이 시작되었다. 1892년 라리가 필리피나라는 비밀결사가 설립되었고, 1898년 6월12일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F Aguinaldo) 장군이 독립을 선언하며 189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 ❸ 미국 식민지시대(1898~1946)

1898년 12월 미국과 스페인 사이의 강화조약으로 스페인은 2천만 달러를 받는 대가로 필리핀을 미국에 이양했다. 이로부터 미국의 통치가 시작된다. 미국은 스페인 식민지 시대와는 달리 1916년 이후 점진적인 자치를 허용한다. 그리하여 1935년 11월에 케손(M. L.

Quezon) 대통령의 자치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 ❹ 일본군의 점령(1942~1945)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침략으로 1943년 10월 14일 호세 P. 라우렐(Jose P. Laurel)을 수반으로 하는 괴뢰 정부가 수립하게 된다. 1945년 2월 3일 맥아더 장군이 서지오 S. 오스메나(Sergio S. Osmena) 대통령에게 자치정부를 이양하기 전까지 일본군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

### ❺ 독립 이후의 필리핀(1946~ )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1년 뒤인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정식 독립을 달성한다. 그러나 마르코스(Marcos) 대통령 집권기간(1965~1986) 중 만연된 독재와 부패로 국력이 쇠퇴하게 된다. 결국 1986년 EDSA 혁명으로 마르코스는 축출되고 1986년 2월 25일 야당의 후보인 아키노(Aquino)와 라우렐(Laurel)이 대통령 및 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아키노 대통령 이후 라모스(Ramos) 및 에스트라다(Estrada) 대통령이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부정부패, 국정운영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자 제2차 시민혁명(People Power II)이 발발하여 에스트라다는 스스로 사임하게 되고 2001년 1월 20일 아로요(Arroyo)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아로요 대통령은 2004년 5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8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공부채 누적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개발 10대 공약, 5대 경제개혁 패키지 등을 발표한다. 또한 8대 세수증대 조치를 추진하게 되나 아로요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 및 국민들의 민심 이반으로 인해 2010년 5월 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길버트 테오도로(Gilbert Teodoro) 전 국방장관이 아



필리핀 15대 대통령 아키노

키노 상원의원에게 패배하게 된다.

2010년 5월 대선에서 베니그노 시메온 "노이노이" 코후앙코 아키노 3세(Benigno Simeon "Noynoy" Cojuangco Aquino III) 자유당 상원의원이 부패 청산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 등 국가 혁신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되었다. 취임 이후 부패 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진실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로요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임명한 공직자들을 사퇴시키는 한편 비리 의혹이 제기된 관급 공사 계약을 파기하는 등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 4. 정치

### ❶ 정치

근대적 민족주의의 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험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필리핀은 1946년 공식 독립 이후 1972년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등장했다. 1972년 계엄 선포 이후 1986년까지의 제2단계에서는 '실패한 개발독재의 전형'으로 전락하였다. 하지만 1986년 '시민혁명' 이후의 3단계에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 가능성을 실증하는 새로운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정치의 가장 큰 단점은 정당정치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소수의 엘리트가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 그 때문에 '인물 중심'의 정당체계가 작동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책 중심의 '정책 정당'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정치인들의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전후로 정당 교체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사회구조와 정치문화의 정체를 가져왔다.

### ❷ 국가 조직

행정부서는 총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료의 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교체될 때마다 각료의 수도 증감한다.

필리핀은 미국식 의회제도를 채택하여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제 내각의 부처는 원칙적으로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의 정치적 관심 분야에 따라 특정 부서 순으로 서열화 되는 경향이 있다.

### ❸ 향후 과제

오늘날 필리핀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장기간 지배받은 스페인의 영향도 크지만 미국의 신민통치가 제공했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은 더욱 지대하다. 그러기에 필리핀 내부의 확실한 민족의식 회복과 강력한 주체성 확립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 5. 경제

### ❶ 경제 구조

- 인프라 및 산업기반이 열악하며 15대 명문가문이 국부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가구당(5인 기준) 월 소득이 134달러 이하이며 빈곤층이 전 인구의 1/3이다. 극심한 빈부격차 요소로 인해 아세안(ASEAN) 국가 중 발전 속도가 늦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노동력의 1/3이 농업에 종사하나 GDP중에서 농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한 낮은 농업 생산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이 15%이며 GDP 비중 30%를 차지하는 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51%로 GDP 비중 55%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업 종사비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연 2.16%의 높은 인구증가율 및 7.4%의 실업률 그리고 정부 부패 및 무능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가 경제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 2010년 기준으로 약 188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파견 근로자의 송금과 매장량 세계 8위인 풍부한 자연자원, 영어사용, 저렴한 인건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적자 해소 및 경제개발 노력을 감안 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❷ 경제 동향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OFWs : Overseas Filipino Workers) 송금액은 증가하였고 소비중심 경제구조에 힘입어 인근 동남아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인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10년 상품과 서비스 수출이 성장세를 보이며 금융위기 영향으로 1.1% 성장에 그친 2009년 경제침체에서 반등하여 7.3%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원유, 곡물,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2010년 94억 달러 적자)하고 있다.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필리핀 GDP의 104%, 외환보유고의 38% 수준(2010년)이며 해외근로자 송금액으로 필리핀은 무역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필리핀 외채 잔액 비중이 GDP의 49%로 외채 상환부담은 과중하다.

## 6. 사회

### ❶ 치안

- 필리핀은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추산되지만 경찰 총 병력은 10만 명 수준이다. 경찰 1인당 약 1,000명,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는 약 5,000명의 치안을 책임지는 수준이다.
- 관광객이 자주 찾는 수빅, 세부 막탄섬, 보홀섬, 보라카이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치안상태가 좋지 않으며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 데오로시, 수리가오/아구산주 제외), 술루, 바실란, 팔라완주 프린세스 프린세사 이남지역은 테러 및 범죄 단체의 활동이 왕성하고 이슬람 반군과 정부군과의 교전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 2009, 2010년 한국사람을 상대로 각 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에 의한 강력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❷ 종교

필리핀은 아시아 유일의 가톨릭 국가이다. 전체 인구 중 83%가 가톨릭교인이며 약 9%는 개신교이다. 가톨릭의 변형인 엘 샤다이(El Shadai)가 최근 급격히 교세를 확장하

고 있다.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는 회교도가 5%, 그리고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불교, 유교, 도교 신자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필리핀 국민은 가톨릭과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으며 이슬람은 아랍의 상인과 모험가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직후인 14세기에 전파되었으나 현재는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산토 니뇨 상

필리핀의 민속신앙은 1521년 마젤란이 와서 로마 가톨릭을 전파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지프니와 버스, 택시 등에 그들의 운행을 지켜준다는 신앙으로 동정녀 마리아나 산토 니뇨(Santo Niño)의 형상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위령의 날(All Soul's Day)에 죽은 자의 무덤에 음식을 놓아두는 것, 그리고 그 무덤에서 죽은 조상들과 함께 하루 종일 또는 온 밤을 지내는 것 등은 민속신앙에서 온 행동양식이라 할 수 있다.

### ❸ 교육

#### ■ 교육현황

1935년 헌법을 기반으로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공용어로 하는 필리핀 독자교육이 추진되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타갈로그어와 영어, 2가지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한다.

중등교육까지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수학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99%, 고등학교는 82%의 높은 진학률을 가지고 있다. 그에 따라 필리핀의 문맹률은 7%로 인도네시아 16.2%, 요르단 13.4%, 몽골 17.1% 등 타 개발도상국보다 낮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볼 만한 것은 라비오 하이스쿨 운동이다. 일명 문맹퇴치운동으로 초등교육의 탈락자들에게 교육시간이 끝난 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문자 학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 학제

| 한 국 | 필리핀 | |
|---|---|---|
| 대학원(박사) | 박사(PhD) 1년 반~3년 | |
| 대학원<br>(석사) | 대학원생(Postgraduate)<br>– PgDip<br>– MA, MSc ...<br>– Mphil | |
| 대학교<br>(학사) | 직업교육 | 학위과정 |
| | 칼리지(College) 2년<br>칼리지(College) 4년 | 대학생(Undergraduate)<br>(학사: 3~4년 치의대: 6~8년) |
| 고등학교 | 4년(진학률 73%) | |
| 중학교 | 없음 | |
| 초등학교 | 6년(만 6세 입학) – 의무교육(진학률 99%) | |

※ 2011년부터 필리핀 정부는 순차적으로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의 13학년 교육제도 도입 예정

### ❹ 언론

1986년 2월 시민봉기 이후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져 마르코스 정권 당시 폐간이나 정간되었던 언론사가 복간되고 새로운 언론사가 창설되는 등 자유언론을 구가하고 있다.

TV 방송국은 국영 MBN-4 외에 민영방송국 6개 사가 있다. ABS -CBN과 GMA-7이 양대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MBN-4, TV5, RPN9, IBC13, NET25이 있다. 방송언어는 필리핀어(타갈로그)를 주로 사용하고 영어를 일부 사용한다.

중앙 일간지로는 매일 발행되는 마닐라 불레틴(Manila Bulletin), 필리핀 스타(Philippine Star),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스탠다드 투데이(Manila Standard Today), 마닐라 타임즈(Manila Times)가 있고, 평일만 발행되는 비즈니스 월드(Business World), 비즈니스 미러(Business Mirror), 말라야 더 데일리 트리뷰(Malaya, The daily Tribune)이 있다. 모두 영어로 작성된다.

라디오는 383개의 AM 방송국, 659개의 FM 방송국이 있다.

### ❺ 주요 공휴일

필리핀의 공휴일은 정규 공휴일(Regular Holiday)과 임시 공휴일(Nationwide Holiday)로 나눌 수 있다.

| | |
|---|---|
| 1월 1일 | 신정(New Year Day) |
| 3~4월 중 | 성 목요일(Maundy Thursday) : 부활절 전 목요일 |
| 3~4월 중 | 성 금요일(Good Friday) : 부활절 전 금요일 |
| 4월 9일 | 바탄 기념일(Bataan Day) : 대일전 희생자 추모일 |
| 5월 1일 | 노동절(Labor Day) |
| 6월 12일 |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
| 8월 21일 | 아키노 기념일(Ninoy Aquino Day)<br>: 아키노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리는 날 |
| 8월 25일 | 독립 영웅 기념일(National Heroes Day) |
| 11월 1일 | 만성절(All Saint Day) |
| 11월 30일 | 보니파시오 기념일(Bonifacio Day)<br>: 카티푸난 혁명의 주도자인 A. 보니파시오를 기리는 날 |
| 12월 25일 | 성탄절(Christmas) |
| 12월 30일 | 리잘 기념일(Rizal Day)<br>: 국가적 영웅인 리잘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리는 날 |

- 정규 공휴일 외에도 대통령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며칠 전에 임시 공휴일(대통령 령)을 선포하기도 한다.
- 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면 월요일로 옮길 수 있다.
- 지역마다 지역 공휴일이 따로 존재하기도 한다.
- 관공서, 은행, 대기업 등은 주 5일 근무제로 토요일은 휴무이다.

# 제 2 부



# 나눔 둘

'함께'라는 기쁨,
필리핀 생활 백과사전

PART Ⅰ. 정착 관련 필수 정보
PART Ⅱ. 이렇게 살면 나도 필리피노
PART Ⅲ. 체험@필리핀 현장

# 정착 관련 필수 정보



## 1. 50kg 맞추기

필리핀으로 올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50kg 미만으로 짐을 꾸리는 것이다. 타 국가에 비하여 가까운 필리핀의 경우 공항에서 내야하는 오버차지 비용보다 우체국 택배나 배편을 이용해 보내는 편이 훨씬 저렴하다. 지역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필리핀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50kg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 ❶ 이건 꼭!

■ **KOICA 지원물품**

KOICA 지원물품 중 크기가 작은 것은 국내훈련 때 미리 받는다. 그 중 랜턴, 창문 경보기 등은 현지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므로 반드시 챙기도록 한다.

■ **압력밥솥**

현지의 쌀로 밥을 해 먹기 위해서는 압력밥솥이 필수적이다. 국내훈련 때 선배와의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물품으로 추천할 정도로 꼭 필요하다. 필리핀 쌀은 한국 쌀보다 찰기가 없고, 한국 쌀에 비해 배가 일찍 꺼져 식후에도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 한국 쌀과 맛이 비슷한 일본 쌀이 판매되고 있으나 현지 쌀에 비해 비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압력밥솥으로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된다.

■ **인터넷 전화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공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기는 다양한 통신사가 있으니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알아보고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동일 회사 가입자끼리는 무료 통화가 가능하므로 잦은 통화가 예상되는 사람과는 같은 회사의 제품을 함께 개통하면 통화료를 줄일 수 있다.

■ **전압변환기(일명 돼지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전자 제품은 보통 220V로 되어 있으나 필리핀은 110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환기가 필요하다. 가격이 비싼 전환기보다는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싼 값의 전압변환기를 추천한다. 현지에서는 한 개에 24페소 정도로 한국의 두 배 가격이다.

■ **얇은 긴팔**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외선 노출이 심해지고 있는 요즘, 한국보다 적도에 가까운 필리핀의 햇볕은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도시의 경우 에어콘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실내 온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얇은 긴팔 옷은 자외선 차단을 돕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리핀에서도 구입은 가능하나 현지 제작된 카디건은 두터워 유용하지 못하므로 한국에서 얇은 재질의 카디건을 가져올 것을 추천한다.

■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물품**

현지적응훈련을 받는 동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긴장한 데다 동기들이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임지로 파견되면 임지에서의 적응,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당면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러한 때에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 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올 것을 추천한다.

### ❷ 줄여야 할 품목

■ **한국음식**

우선 줄여야 할 품목은 음식류다. 한국보다 비싼 가격이지만 현지의 마닐라, 세부, 일로일로 등의 한국식품점에서 구할 수 있다. 또한 명절에 지원물품으로 고추장, 된장, 카레가루, 인스턴트 미역국 등 다양한 한국 식료품이 제공된다. 한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면 10일 정도 후 도착하기 때문에 장아찌나 김부각 등 밑반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은 동 · 서양의 음식문화가 결합되어 대부분의 음식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다. 음식재료 또한 한국의 여름 채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슷한 종류의 현지 식료품들로 대체할 수 있다.

■ **여성용품**

자신이 선호하는 제품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 굳이 한국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2년 동안의 분량을 가져올 경우 아무리 가벼운 물품이라 할지라도 부피가 커지게 된다.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사의 모데스(Modes, 8개에 35페소)나 킴벌리(Kimberly)사의 코텍스(Kotex, 8개에 35페소), P&G 사의 위스퍼(Whisper, 8개에 63페소) 등을 사용한다면 짐을 줄일 수 있다.

■ **영양제**

타지에서의 생활 시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양소의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를 권장한다. 센트롬, Pern-c 등의 비타민제는 현지에서도 구입가능하며 마닐라와 세부에 있는 헬스 옵션(heath option)이라는 유기농 매장에서 다양한 건강식품 구입이 가능하다.

### ❸ 이건 가져갈까?

■ **빠살루봉(Pasalubong)**

빠살루봉은 필리핀의 문화로 타지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들을 위해 그 곳의 특산물을 선물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싼 물품이 아니더라도 만남에 대한 즐거움의 표시와 한국의 미를 알리는 의미에서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한다면 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스탠드**

현지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한국과는 다른 직장 생활의 특징으로 인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진다. 이 시간에 어학공부나 개인적으로 열망하는 공부들을 하고자 하는 단원들이 많다. 필리핀의 스탠드는 한국의 스탠드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아 눈의 보호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이태리타올**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태리타올 대신 수세미를 각질 제거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익숙한 것을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 가져오는 것을 추천한다.

■ **정장 혹은 파티복**

파티 문화가 적은 한국에 비해 필리핀은 다양한 파티 문화를 즐긴다. 크리스마스, 교사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에 파티를 즐기는데 여자 단원의 경우 한국에서 흔히 입었던 원피스도 이곳에서는 의상 변화(Dress up)로 취급되기 때문에 한두 벌 정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 **기타**

그 외에도 지프니가 있는 도시의 경우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손수건이나 기능성 마스크를 가져오면 좋다. 부드러운 가제 손수건을 선호하는 경우 질이 좋은 한국 물품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 출근할 때 긴바지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고 통풍이 잘 되며 쉽게 마르는 기능성 여름용 등산바지를 가져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2. 열정을 가득 채우기

현지 기관으로 파견된 이후에는 생각했던 것이나 기대했던 것만큼의 생활이 우리들을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해외자원봉사라는 커다란 명분만으로 자기만족을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 해외봉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자. 열정을 이길 수 있는 장애물은 없다. 물론 실력 없는 열정은 부족하므로 자신의 전문성 또한 채워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설령 아는 것이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생각하면 실력만으로 온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모두에게 주어진 2년이라는 시간은 같다. 그러나 어떤 시간을 만들어 가느냐는 각자의 능력과 열정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



# 이렇게 살면 나도 필리피노



## 1. 필리핀을 이해하자

| | 한국 | 필리핀 |
|---|---|---|
| 인사법 | 허리를 굽혀 인사하거나 간단한 목례를 한다. | 자신의 손등을 연장자나 존경하는 사람의 이마에 맞춤으로써 존경을 표한다.(Blessing)<br>친한 사이라면 가볍게 볼에 맞대고 입을 맞춘다. |
| 경비원 | 아파트 정문 또는 각 건물의 정문에서 쉽게 볼 수 있다. | 총기소지 자유국가이므로 상점, 은행, 쇼핑몰 등 돈이 오가는 모든 건물의 입구에서 정복을 입은 경비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 식사예절 |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부터 수저를 들어야 하며, 식사 중 시끄러운 대화나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면 안 된다.<br>기본적으로 각자의 밥과 국 외 반찬은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이다. | 손님이 먼저 음식을 떠야 하며 가족이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때라 여기기 때문에 긴 대화의 시간으로 여긴다. 또한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br>수저를 사용할 때 숟가락은 오른손, 포크는 왼손으로 잡아야 한다. 자신이 먹을 양 만큼만 덜도록 한다.<br>※쌈 문화가 없기 때문에 만약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 필리피노와 함께 밥을 먹을 시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는 행동은 삼가자. 상대방은 내 손의 청결상태를 믿지 않을 것이다. |

| | 한국 | 필리핀 |
|---|---|---|
| 간식 |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먹는다. |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각 식사시간 중간에 규칙적으로 간식(메리엔다)타임을 갖는다. 세끼 식사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간식을 먹음으로써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다.<br>※만약,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식사 외에 간식을 준비하는 것을 잊지 말자. |
| 식사하러 갈 때 | 자신이 먹은 밥의 값을 따로 계산하려 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음식 값을 내는 경우가 있다. | 누군가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청하면, 이미 자신은 준비된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꺼낸 사람이 밥을 사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더치페이를 하고 싶으면 자신이 가진 여윳돈(extra money)이 없다고 의견을 확실히 내비쳐야 한다. |
| 대화 시 | 대화 시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화중의 말을 끊거나 의자 뒤로 기대는 등의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 | 의자에 기대앉아 이야기하는 것은 긴장완화를 위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
| 초대 받았을 시 | 친구나 동료 사이에 집으로 초대 받았을 때, 간단한 음식이나 선물을 들고 간다. | 초대한다는 것은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는 상황이므로 감사한 마음만 가져가면 된다.<br>※그래도 우리는 외국인!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다.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은 신고 들어가도 된다. |
| 외식 |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음식을 먹고 계산대로 계산하러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손님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릇들을 치우지 않는다.<br>음식점마다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팁을 주지 않는다. | 손님이 그릇을 비우면 바로 치워준다. 손으로 네모모양을 만들면 계산서를 자리로 가져다줘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식사가 만족스러웠다면 20~50페소의 팁을 주는 것이 좋다.<br>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 시 먹은 것을 그대로 두고 나가면 알아서 치워준다.<br>※팁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오히려 팁을 두고 가지 않는 사람들을 흉볼 수 있다. 다만 이미 봉사료가 포함되었거나,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면 굳이 줄 필요는 없다. |

| | 한국 | 필리핀 |
|---|---|---|
| 화장실 | 화장실 변기에 커버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공중 화장실 이용 시 한줄 서기를 통해 질서를 지킨다. | 청결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커버 없는 변기를 사용한다. 변기커버가 있다면 청결한지 확인한 후 앉길 바란다. 공중 화장실에선 한줄 서기 문화가 없음으로 그냥 문 앞에 서서 기다리도록 한다. |
| 약속하기 | 원하는 날에 맞춰 약속의 시간과 날을 구두로써 기약하는 경우가 많다. 정해진 시간에 미리 가거나 정확하게 맞춰 간다.<br>※하지만 가끔 인사치례로 다음 만날 날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음. | 약속의 날과 시간을 간단하게 구두로 기약할 시 단순히 인사치례 또는 단순한 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확인하는 방법이 바람맞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br>필리핀의 대중교통인 지프니는 정해진 시간대로 운행하지 않거나 잦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약속시간에 다소 늦는 경우가 많다. |
| 빠살루봉 | 여행 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선물로 주고받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에 달려 있다. | 여행 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친척들을 위해 특산품 또는 간단한 간식들(초콜릿, 스낵류 등)을 사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통용되고 있다.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거절하기 |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거절을 한다. 그때 기본적으로 2~3번 정도 다시 되물어 본다. | 초대했을 시 거절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인 줄 아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 빌려주기 | 돈 또는 물건 등을 빌릴 때 정해진 시간 또는 날짜에 맞춰 돌려준다. | 물건 등을 빌려 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그 사람에게 자신의 물건을 확인한다.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br>돈은 적은 액수라면 그냥 주는 것이 마음 편하다. 큰 액수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
| 피에스타 | 각 시 · 도마다 다양한 주제로 축제를 개최한다.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거나 시행한다. | 1~12월까지 매달 각 지역마다 축제가 열린다. 이때 모든 기관(학교, 공공기관, 회사 및 여러 단체 등)에서 퍼레이드 준비를 하고, 거리는 화려하게 장식한다. 이 기간에는 자신의 집에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나누어 먹는다.<br>※여러 집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초대받은 집에서 많이 먹지 말고 조절하도록 하자. |

| | 한국 | 필리핀 |
|---|---|---|
| 크리스마스 | 한국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들이 화려하게 장식되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 하지만 공휴일은 12월 25일 단 하루뿐이며, 25일 이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 전 국민이 기다리는 가장 화려하고 큰 축제이다. 두 달 전부터 모든 곳을 트리로 화려하게 꾸미며 곳곳에서 캐롤이 들린다. 또한 이 시기에 2주간의 긴 방학을 맞이한다.<br>크리스마스 전에 한 집에 모여 음식을 만들고 12시 정각이 되면 미사를 드리고 각 집마다 파티를 시작한다. |

### 상황 1. 담임선생님께서 점심 초대를 하셨다.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도 함께 한다고 하여 기쁜 마음에 예쁘게 꾸미고 학교에 갔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와도 뭐라 말씀이 없는 선생님. 그리고 점심시간에 사라졌다. 무슨 일일까?
필리핀에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인사치레에 불과한 빈말을 하기도 한다.
또 현지인에게 부탁을 할 때 'OK'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는 확실하게 정해진 약속 또는 대답이 아니었다. 이럴 땐 확실히 언제까지 부탁을 들어 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아놓아야 약속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 상황 2. 동료 교사의 생일파티(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나는 간단히 승낙했다. 하지만 새벽 3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있어야만 했다. 왜? 집에서 하는 파티일 경우, 특히 저녁 시간에 초대되면 파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예의다. 만약 저녁 늦게 초대된다면 사전에 자신이 몇 시에 가야하는지 조심스레 말을 건넨 후 가는 것이 피곤하지 않게 즐기다 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 상황 3. 행사시간에 미리 간 K양.

2시간이 넘도록 행사가 시작하지 않는다. 왜?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의문점이다. 이럴 땐 준비가 덜 되었거나, 교통상의 문제로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자. 모든 행사들이 이러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면 적절한 시간과 타이밍에 가는 센스도 생길 것이다.

## 2. 대중교통 이용하기[3)]

### ❶ 지프니(Jeepney)







01 02 **01, 02** 지프니

필리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바로 지프니(Jeepney)이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군이 필리핀에 두고 간 군용 지프를 개조해 만든 것에서 유래한다. 따로 정류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 원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내리고 탈 수 있다.

지프니의 앞 유리창이나 옆면에 주요 행선지가 적혀있고 요금은 7.5페소부터 시작하며 거리가 멀수록 비싸진다.

지프니를 타고 다니다 보면 훈훈한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멀리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프니를 타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랄 것 없이 서로 짐을 나누어 들어준다. 하지만 지프니 안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치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은 매연이 심하여 사방이 트여있는 지프니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매연을 고스란히 마시게 되므로 마스크나 손수건 등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다.

### ❷ 전철 MRT & LRT

교통체증이 많은 마닐라에서 서민들의 빠른 발이 되어주는 MRT와 LRT. LRTA 1호선은 하루 최대 130만 9680명, 2호선의 경우 73만 24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한

3) 모든 내용은 2011년 6월기준.






01 02 **01, 02** MRT & LRT

국의 지하철과 달리 필리핀의 MRT와 LRT는 지상철이다. 구간별 요금은 다르나 기본 요금은 10~15페소이고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30분(LRT는 새벽1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일회용 표와 정액권이 있다.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을 벗어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MRT를 타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지하고 있는 가방을 검사받아야 한다. 이는 폭탄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물과 같은 액체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여성 전용 칸이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이용하기에 수월한 점도 있다.

### ❸ 택시(Taxi)

■ **쿠폰택시**



쿠폰택시

쿠폰택시는 미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액제 택시이다. 만일 가고자하는 곳이 마카티일 경우 마카티행 쿠폰을 산 뒤 기사에게 주면 데려다주는 방식이다. 퀘존을 가고 싶을 경우, 퀘존행 쿠폰을 사면 된다. 일반택시를 탔을 경우 요금으로 기사와 실랑이를 하지만 쿠폰택시는 그럴 일이 없어 좋다. 하지만 일반택시와 비교해 4, 5배는 비싸다. 도착지까지 같이 가는 일행이 많거나 짐이 무거울 경우에는 고려해볼만 하다.

■ **노란택시(공항택시)**


노랑택시

흔히 공항택시라고 부른다. 일반택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행태가 성행하자 정부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택시이다. 일반 택시 기본요금이 40페소부터 시작한다면, 공항 택시는 70페소부터 시작한다. 요금이 올라가는 구간도 일반택시에 비해 짧다. 같은 도착지를 간다고 했을 때 일반택시와 비교해 약 2배 정도 더 비싸다. 하지만 공항 택시는 차량이 대부분 깨끗하고 출발하기 전에 승객의 이름, 목적지, 그리고 타고 가는 택시의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해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다.

■ **일반택시**



일반택시

필리핀에는 택시가 있는 지역이 얼마 없는데 그 중 마닐라 일반택시는 악명이 높다. 거스름돈 돌려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며 미터기 조작은 애교 섞인 장난으로 취급될 정도다. 10분 거리를 1시간에 걸쳐 가기도 한다. 얼마 전까지 30페소이던 기본요금이 기름 값 인상문제로 40페소로 인상되면서 일반 택시의 가격도 만만찮아졌다. 일단 택시를 타면 아는 모든 현지어를 구사하는 게 좋다. 현지어로 말을 걸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기사가 미터를 조작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자.

### ❹ 트라이시클(Tricycle) & 패디캡(Pedicab)

■ **트라이시클(Tricycle)**

지프니 다음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바로 트라이시클이다.

기본요금은 지역별로 다른데 적게는 7페소에서 많게는 20페소(장거리운행)까지 다양하다.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모양 또한 지역별로 달라 여행하는 도중 지역별 트라이시클을 비교하는 재미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01 02

**01** 트라이시클 **02** 패디캡

■ **패디캡(Pedicab)**

트라이시클이 오토바이로 가는 교통수단이라면 패디캡은 자전거를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인력으로 움직인다. 대도시보다는 시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기본요금은 5~7페소 정도이다. 현지인들은 보통 집 앞에서 멈추지만 단원들은 안전상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리는 것을 권장한다.

## 3. 필리핀의 이동통신은?

### ❶ 이동통신사의 종류

Globe Abot ko ang mundo. SMART sun CELLULAR

첫 번째는 글로브이다. 인터넷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통신사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스마트이다. 글로브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스마트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도시와 지방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글로브를 간소한 차로 앞지르기도 한다. 지방에서 수신 시 가끔 전송 트래픽으로 인해 문자가 오지 않기도 하지만 드문 경우이다.

세 번째는 선이다. 2003년 중순부터 새롭게 떠오르는 이동통신사로 아직은 그 점유율이 낮다.

글로브 & 스마트 프로모션

<table>
<tr><td>글로브 프로모션 (Text 8888로 전송)</td><td colspan="3">• 하루 무제한 텍스트(SUPER20)<br>• 하루 무제한 텍스트 및 전화(SUPER25)<br>• 일주일 무제한 통화(SUPER150)<br>• 무료 무제한 텍스트 + 전화 50분(COMBO20)<br>• 236+전화번호(20페소에 20분 무료통화) 등<br>※ 같은 글로브끼리만 가능하며 프로모션은 시즌에 따라 바뀌니 확인해야 함.<br>글로브 홈페이지 : http://site.globe.com.ph</td></tr>
<tr><td rowspan="2">스마트 프로모션</td><td>텍스트(Text) 258로 전송</td><td>텍스트(Text) 2827로 전송</td><td>텍스트(Text) 909로 전송</td></tr>
<tr><td>• 하루 무제한 문자(unli20)<br>• 하루 무제한 문자 + 다른 통신사 문자 10개 무료(unli25)<br>• 무제한 문자 + 스마트끼리 3분 무료(COMBO25) 등</td><td>• 문자 100개 무료(AT20)<br>• 문자 200개 무료(AT30)<br>• 문자 300개 무료(AT40)</td><td>• 20(하루 통화 10분+ 문자5개)<br>• 100(5일 동안 통화 60분 제공+ 문자30개)</td></tr>
<tr><td colspan="3">※같은 스마트끼리만 가능함. 이 외 프로모션이 다양함으로 확인 후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쓰면 저렴함.<br>스마트 홈페이지 : http://smart.com.ph/</td></tr>
</table>

※ 각 통신사 마다 다양한 프로모션이 있으니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점의 팸플릿을 확인할 것.

### ❷ 이동통신 방식

필리핀 이동통신 시장은 모두 GSM방식이며 선불제로 이루어져 있다. 핸드폰을 산 후 심(SIM)카드를 사서 번호를 받는다. 그 다음 100~500페소까지 적혀있는 후불제 폰카드 또는 로드(Load)라고 불리는 카드를 사서 SIM에 충전해야 한다.

**주의점**

① 현지에서는 휴대폰 도난 사고가 많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자신의 심을 끼우면 누구나 휴대폰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싼 휴대폰을 사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만약 샀다면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② 심 카드 뒷면에 보면 유효기간이 있다. 그 기간 내에 쓰지 않으면 충전된 요금이 사라지니 주의하자.

### ❸ 단말기

현지인들은 두세 개의 핸드폰을 지니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핸드폰 가격도 싸거니와 각 통신사의 심카드를 끼워 같은 통신사를 쓰는 사람에게 문자, 전화를 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이다. 듀얼 심(Dual SIM) 핸드폰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 ❹ SMS 문자전송

어느 장소를 가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1분당 8페소인 비싼 통화료 때문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선호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놀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프로모션을 이용하면 정해진 가격 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같은 통신사끼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통신사 핸드폰으로 문자를 전송한다면 기본 1페소가 든다.

## 4. 필리핀의 인터넷은?

### ❶ 인터넷사의 종류

필리핀의 대표 인터넷 회사는 이동통신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마다 PLDT(전화국)와 각 지역의 대표 인터넷 회사들이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신청 시 각 지역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회사가 어디인지 잘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한다.



### ■ 가정용 인터넷 (상품명이 요금임)

| 글로브 라인<br>(GLOBE LINES) | 스마트<br>(SMART) | PLDT |
|---|---|---|
| • DSL 인터넷<br>ONLY PLAN 999<br>(1Mbps까지)<br>• DSL 인터넷<br>ONLY PLAN 1999<br>(2Mbps까지) | • WIMax PLAN 999<br>(1Mbps까지) | • XPERIENCE 999<br>(1Mbps까지)<br>• XCITE 1995<br>(2Mbps까지)<br>• XCEL 3000<br>(3Mbps까지)<br>※ 모뎀 및 설치비 무료 |

※ PLDT 홈페이지 : http://www.pldt.com.ph/ pldt

### ■ USB 무선 인터넷

| 글로브 타투<br>(GLOBE TATTOO) | 스마트 브로<br>플러그 IT(PLUG IT) |
|---|---|
| • 30분당 10페소<br>• SUPERSURF50<br>:1일 무제한 인터넷(50페소)<br>• SUPERSURF 220<br>:5일 무제한 인터넷(220페소)<br>※ To 8888 | • 15분당 5페소<br>• UNLISURF50<br>:1일 무제한 인터넷(50페소)<br>• UNLISURF200<br>:5일 무제한 인터넷(200페소)<br>※ To 2200 |
| | 포켓 와이파이(Pocket WiFi) |
| | • 30분당 10페소(2Mbps까지)<br>위 스마트 브로 프로모션 사용 가능<br>※ 기기 값이 비쌈. |

※ USB모뎀 1200페소 정도, 심(SIM) 카드: 40페소, 충전방법은 휴대폰 충전과 같음.

## ❷ 인터넷 가입 및 설치 방법

■ 주위에 있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한다.

- 본인의 신분증명서(ID CARD), 여권, 통장을 가져간다.
  (봉사하는 기관의 신분증명서를 가져가면 더 수월하다.)
- 고객정보(Customer Information Sheet)에 인적 사항을 적는다.
- 비용(설치비 + 한달 요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 집 주소 및 약도를 그려준다.
- 2~3일 후 기사님의 방문 및 설치가 이루어진다.

### ❸ 요금 납부 방법

최근에는 집주소로 납부용지가 오지 않고 메일로 오므로 요금 납부 날짜엔 항상 메일함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용지 또는 메일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 시 받았던 고유번호(Account Number)를 적어 가까운 대리점에 간다. 자신의 방문 목적 및 고유번호를 알려주면 직원이 친절하게 요금 납부를 처리해준다. 마지막으로 항상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자.

### ❹ 기타

- 인터넷 신청 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중도 해약을 할 경우 2,000페소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 1년 계약이 끝날 때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약 250페소가 든다.
- 이사로 인해 인터넷을 다시 연결할 시 약 2,000페소가 든다.
-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인터넷 회사에서 설치 수를 한정시켜 놓기도 한다. (일부 지역 특징)
- 낮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인터넷 카페에서의 인터넷 접속량이 많아서이다.
- 지역별로 설치를 권하는 모뎀 종류가 다양한데 와이파이 형식의 모뎀보다는 전화선에서 바로 모뎀과 컴퓨터를 랜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더 좋다.
- 인터넷 기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 인터넷 문제시 바로 연락할 수 있다. (본사 연결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처음 인터넷 설치 시 설치비용이 드는 곳도 있다. 또한 모뎀 비용이 무료인 요금제도 많으므로 모뎀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면 자신이 신청한 인터넷 요금제를 잘 살펴보고 추가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자.

## 5. 필리핀의 우편은?

### ❶ LBC



LBC

LBC(Luzon Brokerage Corporation)는 필리핀 내에 약 800여개의 지점이 있어 우체국이나 EMS, FD, DHL, 페덱스(FEDEX)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현지에서 가장 잘 이용되는 택배 회사이다. 아울러 송금 업무도 취급하나 수수료가 비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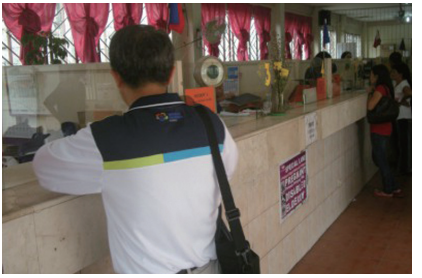
요금은 서류일 경우 정규(Regular) 100페소, 추가(Extra) 135페소, 많은 경우(Super) 170페소가 기본요금이며 소포의 경우에는 작은 것(Small) 145~150페소, 큰 것(Large) 235~240페소가 기본요금이다. 큰 박스일 경우에는 기본 3kg까지는 235~240페소이며 1kg마다 75~80페소가 올라간다.

이렇듯 LBC는 문에서 문까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의 대표 운송 수단으로 우체국보다 빠르고 편리하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❷ 우체국

현지 우체국은 이용하기가 편리하지만은 않다. 한국으로 보내는 간단한 편지나 전보의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소포를 보내거나 받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단원 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 보내는 소포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다. 배편은 거의 한 달이 걸리지만 항공편의 경우 1주일 안에 도착한다. 이때 전자제품이나 휴대폰, 다량의 음식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01 02 **01, 02** 우체국

필리핀의 우체국은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지점에 따라 운영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방의 경우 대부분 우체국에서 소포를 집까지 배달해주지 않으므로 휴대폰 문자나 연락이 오면 찾으러 가야 하며 수수료 40페소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 우체국 직원이 내용물을 조사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포장을 하지 말고 우체국에서 하는 것이 좋다. EMS를 이용하여 최고 30kg까지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

※ 우체국 대표지점(주소/전화번호) : 중앙우체국(Central Post Office)
(Magallanes Drive Manila 1000 Philippines / 02) 527 8561)

### ❸ 요금[4)]

■ EMS 요금(서류)

| 무 게 | 요 금 |
|---|---|
| 250g 까지 | 717 페소 |
| 1kg 까지 | 1,059 페소 |
| 2kg 까지 | 1,360 페소 |
| 3kg 까지 | 1,792 페소 |
| 4kg 까지 | 2,224 페소 |
| 5kg 까지 | 2,656 페소 |

4) 현지 우체국 요금 참고 사이트: http://philpost.gov.ph/web/customer-guide/

■ 일반소포 : 첫 1kg에 1,090페소, 매 1kg 추가 시 163페소씩 요금 추가

■ 일반 편지

| 무 게 | 요 금 |
|---|---|
| 20g 까지 | 30 페소 |
| 21g ~ 50g 까지 | 60 페소 |
| 51g ~ 100g 까지 | 105 페소 |
| 101g ~ 250g 까지 | 245 페소 |
| 251g ~ 500g 까지 | 475 페소 |

■ 일반 엽서

| 무 게 | 요 금 |
|---|---|
| 20g 까지 | 25 페소 |
| 21g ~ 50g 까지 | 50 페소 |
| 51g ~ 100g 까지 | 95 페소 |
| 101g ~ 250g 까지 | 220 페소 |
| 251g ~ 500g 까지 | 435 페소 |

## 6. 필리핀의 은행은?[5)]

현지에는 다양한 규모의 은행들이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불안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다음 4곳의 대표적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페소 통장과 달러 통장을 모두 만들고, 가능하다면 ATM 카드도 모두 만드는 것이 편리하다. 달러 출금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달러 통장 ATM 카드가 있으면 ATM을 이용하여 은행 환율로 즉시 페소 출금이 가능하다. 달러는 입금된 당일은 출금할 수 없으며 며칠이 지난 후 출금 가능하다. 은행 혹은 지점에 따라 수수료의 책정방식과 영업시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 인근의 은행을 선택하자.

| 예금(Deposit) | 페소 통장(P) | 달러 통장($) | 준비 서류 |
|---|---|---|---|
| BDO | 5,000 | 200 | 1. 여권<br>2. 수원기관 ID<br>3. PNVSCA ID<br>4. 여권 사진 1~3장<br>5. 외국인등록증(ACR) |
| BPI | 1,000 | 500 | |
| 메트로 은행(Metro Bank) | 5,000 | 200 | |
| 랜드 은행(Land Bank) | 500 | 100 | |

### ❶ BDO(Banco De Oro)

현재 필리핀 단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며 별도로 무료 발급해주는 BDO 리워즈(Rewards) 카드는 포인트가 쌓이면 SM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TM을 이용한 페소 인출 시 수수료가 없다.

- 영업시간: 월~금, 오전 8:30~오후 5:30

### ❷ BPI(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

필리핀 아얄라(Ayala) 그룹에서 운영하는 은행으로 자산 3,100억 페소, 고객 예금 2,400억 페소이다. 자산 기준 필리핀 1위 은행이며 은행 간 송금 시 수수료가 없다.

- 영업시간: 월~금, 오전 9:00~오후 4:30

### ❸ 메트로 은행(Metro Bank)

자산 3,100억 페소, 고객 예금 2,310억 페소로 자산 기준 필리핀 2위의 은행이다. 국내 총 471개의 지점이 있다.

- 영업시간: 월~금, 오전 9:00~오후 3:00

### ❹ 랜드 은행(Land Bank)

PNB(Philippine National Bank)와 함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은행이다.

- 영업시간: 월~금, 오전 8:30~오후 3:00

5) 1. BDO: www.bdo.com.ph 2. BPI: www.bpiexpressonline.com
3. 메트로 은행: www.metrobank.com.ph 4. 랜드은행: www.landbank.com

### 필리핀의 화폐



- 환율 : 1페소(P) = 26원(KRW) (시세에 따라 변하지만 일반적으로 페소*26=한국(원)으로 계산)
  예) 200페소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00p*26 = 5,200원)
- 지폐(10p, 20p, 50p, 100p, 200p, 500p, 1,000p), 동전(5c, 10c, 25c, 1p, 5p, 10p)
- 1페소(peso)는 100센타보(centavos)
- 1, 5, 10페소 : 많이 사용하는 동전 (10페소는 동전, 지폐 2가지가 있었으나 지폐는 거의 쓰지 않음)
- 20, 50, 100, 200페소 : 주로 사용하는 지폐
- 500, 1,000페소 : 큰 금액의 지폐.(거스름돈 받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 잔돈은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지프니와 택시에서!)
- 2010년 새로운 디자인의 신화폐가 제작되었으나 유통량은 적음.

**※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알려주는 위조지폐 확인방법**

돌출 프린트, 시리얼 번호, 보안 파이버, 워터마크, 보안실 등을 삽입하여 위폐방지. 손쉽게 위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지폐 앞면 고대 스페인어 혹은 바이바인어로 쓰인 필리피노(PILIPINO)를 눕혀서 봤을 때 완벽한 형체가 보이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한다.

### 환전 팁

- **환전하기 전**
  환전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환율이다. 환율 변동이 잦으므로 주기적으로 환율을 체크하여(은행 사이트 이용) 환율이 높을 때 바꾸도록 한다.
- **환전 시**
  사설 환전소 마다 환율이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낮은 단위의 달러보다 100달러를 높게 환전해주므로 100달러 단위로 환전하도록 한다.
  금액이 클 경우 공시 환율보다 높게 환전해주므로 환율이 높고 당분간 오를 것 같지 않다면 생활비를 한 번에 환전하도록 하자. 그러나 사설 환전소 이용 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위험하므로 조심하도록 하고 바로 은행에 입금하도록 한다.

※ 은행은 사설 환전소에 비해 환율이 낮으나 안전하며 사설 환전소는 은행에 비해 환율은 높으나 안전에 취약하다.

## 7. 집은 내 손으로 고른다!

### ❶ 집의 유형

필리핀에서 집을 고를 수 있는 유형은 네 가지로 단독주택, 아파트(단독주택이 2개 이상 한 단지 내에 있는 것), 원룸, 홈스테이이다. 이 네 가지 외의 집들은 도난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집이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 ❷ 집 찾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코워커나 기관장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다. 필리핀에서는 부동산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빈집의 대문에 임대(For Rent)라고 적혀있는 간판을 보거나 발품을 팔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음알음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성급하게 집이 하나 있다고 바로 계약해서도 안 된다.

구글어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실 사진으로 보여주는 구글어스에서 자신의 지역을 검색한 후 주변 홈 타운으로 이루어진 곳을 찾아 체크해 놓자. 그리고 코워커와 함께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불리는 홈타운을 정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도록 한다. 그리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 집을 찾도록 한다.

※ 홈스테이를 하고 싶다면 OJT(On the Job Training) 기간에 임지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 ❸ 집 계약하기

집을 계약하기 전에 우선 집안 곳곳을 확인하자.

※ 기억하기 쉽도록 사진을 찍어두거나 메모하는 것이 좋다.

■ **물과 전기 공급은 잘 되는지?**

1층과 2층 모두 물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지역은 물이 하루 중 몇 시간만 공급되는 곳이 있다. 그러므로 24시간 물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봐야한다. 물탱크는 필수! 계약을 할 거라면 전구 · 전등 상태 확인 및 그 지역 내 정전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 **정문과 가드가 있는지?**

모든 집에서 안전보안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정문이다. 정문이 있다면 우선 외부사람의 출입과 노출에 있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집을 찾다보면 가드(경비원)가 저녁 시간에 아파트 입구를 지키는 경우도 있다.

■ **햇빛은 잘 드는지?**

필리핀의 우기엔 햇빛을 며칠 또는 몇 주간 보기 힘들다. 때문에 가장 많이 속 썩이는 것이 바로 곰팡이! 집을 둘러볼 때 층에 관계없이 모든 방엔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와 벽에 곰팡이 흔적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 **깨지고 부서진 곳은 없는지?**

잘 봐둬야 하는 문제이다. 이미 망가져 있는 집안 곳곳으로 인해 계약 만료로 나가야 할 때 주인과 종종 다투게 되기도 한다.

■ **주인이 해 줄 수 있는 가구/가전이 있는지?**

주인은 집이 나가게 된다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단원들은 필요한 가구나 가전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모든 가구나 가전이 포함된 집을 렌트할 경우는 상관없다.

■ **이웃은 어떠한지?**

이웃과 공동으로 쓰는 무언가 때문에 난감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물탱크의 물을 함께 써야하는데 이웃에서 다 써버려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나 옆집의 소음으로 인해 장기간 숙면을 방해 받는 경우이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

■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곳까지 몇 분?**

지프니를 타러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밤에 지프니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가는 거리다. 땡볕 강한 건기 때 집 앞에서 기관까지 편하게 한 번에 가는 지프니를 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 **집 주변은 어떠한지?**

소음과 거리를 뗄 수 없는 곳이 필리핀이다. 새벽부터 틀어 놓는 노래 소리나 근처 술집에서 들리는 소음, 각종 동물까지. 공해는 물론이거니와 소음에서 잠시나마 탈출 할 수 있는 곳, 편안한 휴식이 기다리는 집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때 재래시장 또는 편의시설에서 거리가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이다.

■ **안전한 지역인지?**

홍수, 가뭄, 태풍 등의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보단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묻는 것이 가장 솔직하다. 특히 우기 기간 동안 물에 잠기는 지역이 많으니 잘 알아보도록 한다.

위의 모든 내용들을 충족했다면 주인과 계약하도록 한다. 하지만 그전에 미리 계약서 복사본을 달라고 하여 충분히 내용을 이해한 후 사인하도록 하자. 공인까지 받으면 그 집은 1년간 당신의 공간이 되어줄 것이다.

### ❹ 주거지 임차 체크리스트(임차 시 출력하여 활용)

| 체크사항 | | Y | N |
|---|---|---|---|
| 외 부 | | | |
| 주거지 인근환경 | 1. 근처에 들판, 숲 등 공터가 없다. | | |
| | 2. 근처에 작업장, 창고, 공사 중인 부지, 빈 집, 빈 공장 등의 시설물이 없다. | | |
| | 3. 근처에 바다나 강 등 수해를 입힐 만한 요소가 없다. | | |
| 주거지 환경 | 1. 거주자만 출입이 가능하거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한다.<br>– 읍, 면(municipality)의 경우 충분조건 | | |
| | 2. 불법침입을 예방할 수 있는 분리된 철창 대문이 있다. | | |
| | 3. 집 주변에 하수도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 | | |
| | 4. 해당건물 세입자를 위한 물탱크가 있다. | | |
| | 5. 정전 시에도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펌프가 있다. | | |
| | 6. 소음이 될 만한 요소가 근접해 있지 않다. | | |
| 내 부 | | | |
| 문 | 1. 현관에 기본 도어록 이외에 보조 장치가 있다.<br>(내부에서만 잠금이 가능한 장치가 있다) | | |
| | 2. 현관 밑 부분에 벌레가 들어올 만한 틈새가 없다. | | |
| | 3. 현관문 외에 보조 창살문이 설치되어 있다. | | |
| | 4. 문의 이음새가 잘 연결되어 있고 경첩이 튼튼하다. | | |
| | 5. 출입문을 열지 않고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다. (도시) | | |
| | 6. 창문에 스크린(Screen)이 설치되어 있고 잠금장치가 있다. | | |
| | 7. 창문 잠금장치의 상태는 튼튼하다. | | |
| 부엌 | 1. 개수대 아래쪽의 수납장은 청결하고 해충이 다닐만한 통로가 없다. | | |
| | 2. 가스레인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 | | |
| | 3. 가스통을 외부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 | |
| | 4. 음식 냄새가 빠질만한 문 혹은 창문이 있다. | | |
| | 5. 상단 수납장의 문이 유리로 되어 있어 눈으로 확인 가능하다.<br>(해충 피해 방지) | | |
| 방 | 1. 햇볕이 들고, 통풍이 잘된다. | | |
| | 2. 바닥재가 오래되지 않아 청결하며 이음새에 구멍이 없다. | | |

| 체크사항 | | Y | N |
|---|---|---|---|
| 화장실 | 1. 화장실이 내부에 있다. | | |
| | 2. 통풍이 잘 된다. | | |
| | 3. 변기의 상태는 청결하며 뚜껑이 구비되어 있다. | | |
| | 4. 변기의 밸브를 눌렀을 때 수압이 적절하여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 | | |
| | 5. 수도꼭지와 샤워기의 상태가 양호하고 물이 잘 나온다. | | |
| | 6. 세탁기를 놓을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 | | |
| 기타 | 1. 우기에 대비하여 빨래를 널 수 있는 공간이 있다. | | |

"집은 반드시 내 손으로 꼼꼼히 체크하고 결정해야 해요!!"



## 8. 물가를 알면 필리핀이 보인다![6)]

### ❶ 가전

| | |
|---|---|
|  | LG 세탁기(7kg) • 12,995페소<br>자동세탁기의 반값이면 수동세탁기를 살 수 있지만 빨래하는 동안 옆에서 기다렸다가 탈수칸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임기 마치고 갈 때 중고로 팔수 있으므로 자동세탁기를 권한다. |
|  | LG 에어컨 골드(Gold) • 9,995페소<br>단원들이 구하는 집은 대부분 에어컨이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사야 한다면 크지 않은 사이즈로 구입하길 권한다. (전기요금이 비싸고, 너무 더울 때만 짧게 사용하게 됨) |
|  | 삼성 냉장고 • 11,995페소 (7CUFT)<br>생활하다보면 냉장고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날씨가 덥다보니 모든 음식을 냉장보관 해야 한다. 이왕이면 조금 더 큰 것 또는 냉장과 냉동 칸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구매하길 권한다. |
|  | 라게르마니아(La Germania) 전기스토브 • 1,690페소<br>콘도 스타일의 집을 구하게 되면 가스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전기로 된 레인지를 구입해야 한다. |
|  | 라게르마니아(La Germania) 가스레인지 • 1,220페소<br>가스사용이 가능하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를 추천한다. (가스통은 평균 6개월 이상 사용가능) |
|  | 전기밥솥 • 700페소<br>한국에서 전기압력밥솥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현지에서 취사와 보온기능이 있는 전기밥솥을 살 수 있다. |
|  | 선풍기 • 770페소<br>에어컨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선풍기. 2년 동안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임으로 튼튼한 제품을 고르자. |

6) 2011년 6월기준 가격.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❷ 가구




**의자**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블록 의자와 테이블. 현지에서는 나무나 스틸로 만들어진 가구보다는 가격 면에서 저렴한 플라스틱 가구들을 많이 사용한다. 의자는 개당 350페소, 테이블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다. (1,000~2,000페소)



**침대**

스틸(싱글 사이즈 3,500페소)이나 나무(싱글 사이즈 4,500페소)로 만들어진 침대 프레임의 가격은 꽤 비싸다. 그러나 대나무로 만든 침대는 저렴하면서도(싱글사이즈 1,000페소, 더블 사이즈 2,000페소) 튼튼하고 실용적이어서 필리핀에서 많이 이용된다.

필리핀에선 스프링 매트리스 보다 폼을 선호한다. AAA급의 폼은 매트리스와 가격이 비슷하다. 싱글 사이즈의 스프링 매트리스(SALEM)는 4,000페소, 폼(URATEX)은 3,300페소.

## ❸ 생활용품




**버터(227g) • 100페소**

빵에 바르거나 구울 때 사용하는 버터(무염버터를 추천함)




**요플레(125g) • 28페소**

요플레(첨가된 과일에 따라 종류가 다양함)




**크림치즈(225g) • 148페소**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는 크림치즈. 빵에 발라먹으면 맛있다.




**참치(180g) • 29.5페소**

한국의 참치맛과 가장 비슷한 참치는 센트리 플레이크 인 벡 오일(Century Flakes in Veg Oil)이다.



**맥주(1병) • 22페소**

한국에서 7,000원가량 하는 산미구엘 맥주를 단돈 600원에.
라이트–병(27페소), 캔(32페소)
필슨–병(22페소), 캔(32페소)



**샴푸 • 124페소**

헤드 앤 숄더(Head & Shoulder) 204페소(400mL)
클리어(Clear) 200페소(375mL)
로레알(Loreal) 199페소(375mL)
선 실크(Sun Silk), 142페소(400mL)
린스(95페소–180mL)

| | | | |
|---|---|---|---|
|  | **치약(160g) • 100페소**<br>세계적인 브랜드의 콜게이트 화이트닝 치약.<br>클로즈업(Close Up) 70페소(150g)<br>화이트닝 클로즈업(Close Up) 70페소(100g) |  | **모기 기피제(150mL) • 140페소**<br>모기 기피로션<br>현지 브랜드인 휴먼 내츄럴(Human Nature)사에서 천연재료로 만든 모기 기피제를 구입할 수 있다. |
|  | **휴지(2Ply 12롤) • 263페소**<br>사니케어(Sanicare) 150페소(12롤)<br>엑스트라(Extra) 128페소(12롤) |  | **잼(350mL) • 174페소**<br>현지에서 만들어진 '클라라올(Clara ole)' 잼은 60페소로 보다 저렴하다. |
|  | **크래커 • 42페소**<br>현지인 뿐 아니라 단원들도 즐겨먹는 크래커 |  | **사발면(65g) • 24페소**<br>현지 사발면(짬뽕맛) |
|  | **콘 프레이크 • 61.25페소**<br>허니골드(Honey GOLD) : 95페소<br>클러스터(Clusters) : 104페소 |  | **살충제(600mL) • 265페소**<br>스프레이 타입의 살충제. 유난히 바퀴 및 개미, 모기가 많은 필리핀에서는 필수품. |
|  | **가루비누(1kg) • 110페소**<br>세탁용 가루비누 고체형 빨래비누도 있긴 하나 쉽게 무르는 단점이 있다. |  | **에틸알코올(250mL) • 38페소**<br>에틸알코올 일반적으로 손을 닦거나 바닥을 청소할 때 사용. |
|  | **식용류(500mL) • 253페소**<br>일반식용유는 105페소로(950mL) 올리브유에 비해 저렴하다. |  | **간장(500mL) • 100페소**<br>맛있는 일본 간장 현지간장 실버스완(Silver Swan), 18페소(500mL) 다투 푸티(DATU PUTI) 25페소(1L) |

| | | | |
|---|---|---|---|
|  | **치즈(100g–6장) • 76페소**<br>슬라이스 치즈<br>필리핀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제품이 비싼 편이다. |  | **우유(1L) • 70페소**<br>멸균우유로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br>네슬레 프레쉬(Fresh) 우유 95페소(1L) |
|  | **일회용 샴푸, 린스(6개) • 27.75페소**<br>일회용 샴푸, 린스 외 다양한 품목(화장품, 치약, 세제 등)의 일회용 포장된 상품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  | **물(6L) • 71.5페소**<br>증류된 음용수<br>수질이 나빠 음용수는 꼭 사서 먹어야 한다. 대용량 25~50페소 (5갤런, 지역마다 가격차이가 있으며 배달 가능) 내추럴 스프링(Natural Spring)사 70페소(6L), 75페소(10L) |
|  | **쌀(2kg) • 157페소**<br>자스포니카 쌀(일본쌀)<br>한국쌀과 가장 비슷한 맛<br>345페소 (5kg) |  | **섬유유연제(400mL) • 86페소**<br>섬유유연제 |

## ❹ 식료품

| | | | |
|---|---|---|---|
| 배추 80페소(1kg) | 양파 98페소(1kg) | 보라색 양파 95페소(1kg) | 감자 58페소(1kg) |
| 당근 60페소(1kg) | 가지 65페소(1kg) | 양배추 66페소(1kg) | 오이 52페소(1kg) |
| 무 25페소(1kg) | 마늘 140페소(1kg) | 닭 110페소(한 마리) | 계란 6페소(1개) |
| 파 199페소(1kg) | 소고기-불고기용 310페소(1kg) | 포크 벨리(Pork Belly, 삼겹살용) 173페소(1kg) | 미닛메이드 오렌지 주스 52페소(1L) |

## 9. 어떻게 구매해야 할까?

### ❶ 모든 물건은 SM몰에서

대부분의 물건은 SM 백화점(Department)이나 SM 수퍼마켓(Supermarket)에서 모두 구입 가능하다. 기기나 공구 같은 것은 하드웨어(Hardware)라는 곳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만을 따로 모아서 파는 숍도 SM 내에 있다. 지방은 지역별 쇼핑몰이 다양하게 있다.

### ❷ 대형마트에서 알뜰하게

대형 마트라고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버리자. 제품흥정에 앞서 대략적인 가격을 알아 가고 혹시 해주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할인이 가능해요?"라고 물어보자. 운이 좋다면 비싼 제품은 몇 백 페소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현금 구매 시 추가할인도 가능하니 매니저에게 꼭 문의할 것.

대형 마트의 세일 기간을 이용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현지는 각종 명목으로 세일을 자주하므로 1년 내내 세일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 큰 휴일을 앞두고 대량의 세일을 실시하므로 때를 잘 기다렸다가 활용하는 것이 좋다.

### ❸ 가전 및 가구 구입은 이렇게

가전과 가구의 경우 꼭 시내 쪽에 알아보면 조금 더 저렴한 곳이 있으므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현지는 가전 · 가구 등의 배달 및 설치에 따로 돈을 받는다. 이것도 단원 신분을 내세워 꼭 할인받자. 정전이 잦아 전자제품이 쉽게 고장 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고제품은 권하지 않는다.

제품을 사고 나면 영수증은 반드시 챙긴다. 환불은 안되지만 교환은 가능하다. 제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물건 구입 후 7일 내에 가져가야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 (컴퓨터 제품의 경우에는 3일 이내) 교환 시에는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므로 반드시 보관해두는 습관을 기르자.

침대나 가구를 살 때는 고가 브랜드 보다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대나무(Bamboo) 가구는 가격대비 튼튼하고 좋지만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처음에 사자마나 코팅용액으로 덧칠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❹ 비교적 쉬운 한국물품 구입

현지는 한국 교민사회가 발달해서 주도시에서는 한국 음식 및  물품 구입에 어려움이 없다.

## 10. 지역별 필수 생활언어

### ❶ 타갈로그(Tagalog) : 필리핀의 표준어

■ 간단한 인사

- Magandang umaga po. 아침인사
- Magandang tanghali po. 점심인사
- Magandang hapon po. 오후인사
- Magandang gabi po. 저녁인사
- Maraming salamat po. 대단히 고맙습니다.
- Ikinagagalak ko po kayong makilala. 만나서 반갑습니다.
- Wala pong anuman. 천만에요.
- Kumusta po kayo? 안녕하세요?(안부 묻기)
- Mabuti po. 좋아요
- Hindi po mabuti. 안 좋아요.
- Saan po kayo pupunta? 어디가요
- Pupunta po ako sa 장소. ___가요.
- Saan po kayo galing? 어디 갔다 왔어요?
- Galing po ako sa 장소. ___갔다 왔어요.

- Aalis na po ako. 나 갈게요.
- Ingat po kayo. 조심히 가세요.

## ■ 자기소개 및 질문하기

- Ano'ng pangalan mo? / po ninyo? 이름이 뭐예요?
- Ako po si 이름. 내 이름은 ___에요.
- Ilang taon na po kayo? 몇 살이에요?
- 나이 na po ako. 나는 ___살이에요.
- Taga-saan po kayo? 어디서 왔어요?
- Taga South Korea po ako. 한국에서 왔어요.
- Saan po kayo nakatira? 어디 살아요?
- Nakatira po ako sa 장소. ___에서 살아요.
- May asawa na po ba kayo? 결혼했어요?
- Oo, may asawa na po ako. 네, 결혼했어요.
- Wala pa po. Dalaga pa po ako. 아니오, 싱글이예요.(여자)
- Wala pa po. Binata pa po ako. 아니오, 싱글이예요.(남자)
- Ano po'ng trabaho ninyo? 직업이 뭐예요?
- Isa po akong 직업. 나는 ___예요.
- Saan po kayo nagtatrabaho? 어디서 일해요?
- Nagtatrabaho po ako sa 기관명. ___에서 일해요.

## ■ 마켓에서

- Meron po ba kayong 이름? ___있어요?
- Saan po ba ako makakabili ng 이름? 어디서 ___살 수 있어요?
- Ano po'ng pangalan nito? 이거 이름이 뭐예요?
- Ano po'ng lasa? 무슨 맛이예요?

- Magkano po ito? 이거 얼마예요?
- Ang mahal naman po. 비싸요.
- Tawad po. 깎아주세요.

### ■ 택시에서

- Sa 장소 po. ___로 가주세요.
- Metro lang po. 미터로요.
- Anong oras po ito makakarating? 몇 시쯤 도착하나요?
- Sa tabi na lang po. 여기 내려주세요.

### ■ 지프니에서

- Saan po ako makakasakay ng jeepney pupuntang 장소?
  어디에서 ___가는 지프니 탈 수 있나요?
- Pupunta po ako sa 장소. 저는 ___가요.
- Magkano po ang pamasahe? 얼마예요?
- Bayad ko po. 돈 내요.
- Pakiabot po. 전달해주세요.
- Para po! 세워주세요.

### ■ 유용한 표현

- Oo. 네.
- Hindi. 아니요.
- Sige po. 알았어요.
- Dali-dali! / Bilis! 빨리 빨리!
- Dahan-dahan! 천천히 천천히!
- Diba? 그렇죠?
- Tara na po! 가자!
- Mahal kita. 사랑해요.
- Tapos na? 끝났어요?
- Konti lang po. 조금만.
- Tama na po. 충분해요.
- Sandali lang po! 잠시만요!

- Gutom na po ako. 배고파요.
- Busog na po ako. 배불러요.
- Pagod na po ako. 피곤해요.
- Ang init! 더워요!
- Ang sarap! 맛있다!
- Maganda. 예쁘다./ Gwapo. 멋지다.
- Sayang! 아깝다.
- Talaga? 진짜?
- Siyempre! 당연하지!
- Ano'ng sabi mo? 뭐라고요?
- Ano'ng ginagawa mo? 뭐해요?
- Hali po kayo rito / dito. 이리와요.
- Hindi ko po alam. 몰라요.
- Hindi ko po maintindihan. 이해 못하겠어요.
- Nakalimutan ko po. 잊었어요.
- Nalilito po ako. 혼란스러워요.

※ 타갈로그에서 Po는 존칭의 표현이다.

### ❷ 일롱고(Ilonggo) : 파나이, 네그로스 지역에서 사용

■ 간단한 인사

- Maayong aga. 아침인사
- Maayong udto. 점심인사
- Maayong hapon. 오후인사
- Maayong gabi. 저녁인사
- Salamat gid. 대단히 고맙습니다.
- Masadya ako makilala ka. 만나서 반갑습니다.
- Wala sang anuman. 천만에요.
- Kumusta ka? 안녕하세요?(안부 묻기)
- Maayo. 좋아요
- Indi maayo. 안 좋아요.
- Diin ka makadto? 어디가요
- Makadto ako sa 장소. ___가요.
- Diin ka naghalin? 어디 갔다 왔어요?
- Naghalin ako sa 장소. ___갔다 왔어요.
- Sige, babay. 나 갈게요.

| | |
|---|---|
| • Sige, halong. | 조심히 가세요. |

## ■ 자기소개 및 질문하기

| | |
|---|---|
| • Ano/Sin-o ang ngalan mo? | 이름이 뭐예요? |
| • Ako si 이름. | 내 이름은 ___에요. |
| • Pila na ang edad mo? | 몇 살이예요? |
| • 나이 anyos na ako. | 나는 ___살이에요. |
| • Taga diin ka? | 어디서 왔어요? |
| • Taga South Korea ako. | 한국에서 왔어요. |
| • Diin ka naga-istar? | 어디 살아요? |
| • Naga-istar ako sa 장소. | ___에서 살아요. |
| • May asawa/bana ka na? | 결혼했어요? |
| • Huo, may ara. | 네, 결혼했어요. |
| • Wala, dalaga ako. | 아니오, 싱글이에요.(여자) |
| • Wala, soltero ako. | 아니오, 싱글이에요.(남자) |
| • Ano ang obra mo? | 직업이 뭐예요? |
| • 직업 ako. | 나는 ___에요. |
| • Diin ka naga-obra? | 어디서 일해요? |
| • Naga-obra ako sa 기관명. | ___에서 일해요. |

## ■ 마켓에서

| | |
|---|---|
| • May 이름 bala diri? | ___있어요? |
| • Diin pwede makabakal sang 이름? | 어디서 ___살 수 있어요? |
| • Ano ini? | 이거 이름이 뭐예요? |
| • Ano ang manamit? | 무슨 맛이에요? |
| • Tagpila ini? | 이거 얼마예요? |
| • Kamahal ba. | 비싸요. |

- Pwede kaayo. 깎아주세요.

## 택시에서

- Sa 장소. ___로 가주세요.
- Metro lang. 미터로요.
- Ano ang oras maabot? 몇 시쯤 도착하나요?
- Sa lugar lang. 여기 내려주세요.

## 지프니에서

- Diin ako masakay sang jeepney pa 장소?
  어디에서 ___가는 지프니 탈 수 있나요?
- Makadto ako sa 장소. 저는 ___가요.
- Tagpila ang pamasahe? 얼마예요?
- Bayad. 돈 내요.
- Palihog Bayad. 전달해주세요.
- Sa lugar lang! 세워주세요.

## 유용한 표현

- Huo/Oo. 네.
- Indi/Wala. 아니요.
- Sige. 알았어요.
- Dalia! 빨리 빨리!
- Hinay-hinay lang! 천천히 천천히!
- Diba? 그렇죠?
- Nagutom ako. 배고파요.
- Nabusog ako. 배불러요.
- Lakat ta! 가자!
- Palangga ko ikaw 사랑해요.
- Tapos na? 끝났어요?
- Gamay lang. 조금만.
- Sakto na. 충분해요.
- Dali lang! 잠시만요!
- Ano ang siling mo? 뭐라고요?
- Ano imo obra? 뭐해요?

- Nakapoy ako. 피곤해요.
- Kainit! 더워요!
- Kanamit! 맛있다!
- Maayo. 예쁘다./멋지다.
- Sayang! 아깝다!
- Tuod? 진짜?
- Siyempre! 당연하지!
- sulod(come in) 이리와요.
- Ambay/Ambot. 몰라요.
- Indi ko maintyendihan. 이해 못하겠어요.
- Nalipata ako. 잊었어요.
- Galibog ang ulo ko. 혼란스러워요.

### ❸ 세부아노(Cebuano) : 세부, 보홀 지역에서 사용

■ 간단한 인사

- Maayong buntag. 아침인사
- Maayong udto. 점심인사
- Maayong hapon. 오후인사
- Maayong gabii. 저녁인사
- Salamat kaayo./ Daghang salamat. 대단히 고맙습니다.
- Gikalipay nako nga ako kang masinati. 만나서 반갑습니다.
- Walay sapayan. 천만에요.
- Kumusta? 안녕하세요?(안부 묻기)
- Maayo. 좋아요
- Dili maayo. 안 좋아요.
- Asa ka moadto? 어디가요
- Moadto ako sa 장소. ___가요.
- Asa ka gikan? 어디 갔다 왔어요?
- Gikan ako sa 장소. ___갔다 왔어요.
- Adto na ko. 나 갈게요.
- Ayoayo. 조심히 가세요.

## ■ 자기소개 및 질문하기

- Unsay imong ngalan? 이름이 뭐예요?
- Ako si 이름. 내 이름은 ___에요.
- Pilay imong edad? 몇 살이에요?
- 나이 anyos na ko. 나는 ___살이에요.
- Taga-diin ka? 어디서 왔어요?
- Taga South Korea ako. 한국에서 왔어요.
- Asa ka nagpuyo? 어디 살아요?
- Nagpuyo ako sa 장소. ___에서 살아요.
- Minyo ka na ba? 결혼했어요?
- Oo, minyo na ko. 네, 결혼했어요.
- Wala pa. Dalaga pa ko. 아니오, 싱글이에요.(여자)
- Wala pa. Ulitawo pa ko. 아니오, 싱글이에요.(남자)
- Unsay imong trabaho? 직업이 뭐예요?
- 직업 ako. 나는 ___에요.
- Asa ka nagtrabaho? 어디서 일해요?
- Nagtrabaho ako sa 기관명. ___에서 일해요.

## ■ 마켓에서

- Naa ka bay 이름? ___있어요?
- Asa makapalit ako sa 이름? 어디서 ___살 수 있어요?
- Unsay ngalan ani? 이거 이름이 뭐예요?
- Unsay lami? 무슨 맛이에요?
- Tagpila? 이거 얼마예요?
- Kamahal. 비싸요.
- Hangyo. 깎아주세요.

## ■ 택시에서

- Para sa 장소. ___로 가주세요.
- Metro lang. 미터로요.
- Unsang orasa kini mag-abot? 몇 시쯤 도착하나요?
- Lugar lang. 여기 내려주세요.

## ■ 지프니에서

- Asa ako makasakay og dyipni para sa 장소?
  어디에서 ___가는 지프니 탈 수 있나요?
- Moadto ako sa 장소. 저는 ___가요.
- Tagpila ang pliti? 얼마예요?
- Pliti o. 돈 내요.
- Palihug ko'g hatag. 전달해주세요.
- Para! / Lugar lang! / Diri lang! 세워주세요.

## ■ 유용한 표현

- Oo. 네.
- Dili. 아니요.
- Sigi. 알았어요.
- Dali dali! 빨리 빨리!
- Hinay hinay! 천천히 천천히!
- Di ba? 그렇죠?
- Gigutom ko. 배고파요.
- Busog na ko. 배불러요.
- Gikapoy ko. 피곤해요.
- Kainit! 더워요!
- Ta na! 가자!
- Gihigugma ko ikaw. 사랑해요.
- Human na? 끝났어요?
- Gamay lang. 조금만.
- Sakto na. 충분해요.
- Kadyot lang 잠시 만요!
- Unsa? 뭐라고요?
- Nag-unsa ka? 뭐해요?
- Dali na. 이리와요.
- Wala ko kahibalo. 몰라요.

- Kalami! 맛있다!
- Guapa! 예쁘다./ Guapo! 멋지다.
- Sayang. 아깝다.
- Tinood? 진짜?
- Siyempre! 당연하지!
- Dili nako masabtan. 이해 못하겠어요.
- Nakalimut na ko. 잊었어요.
- Naglibog ko. 혼란스러워요.

※ 세부아노에서는 Palihug(Please)을 써서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다.

### ❹ 와라이어(Waray-waray) : 사말, 레이떼 지역에서 사용

■ 간단한 인사

- Maupay nga aga. 아침인사
- Maupay nga udto. 점심인사
- Maupay nga kulop. 오후인사
- Mupay nga gab-i. 저녁인사
- Damo nga salamat. 대단히 고맙습니다.
- Malipayon ako nga nakilala ko ikaw. 만나서 반갑습니다.
- Waray sapayan. 천만에요.
- Kumusta ka? 안녕하세요?(안부 묻기)
- Maupay man. 좋아요
- Diri maupay. 안 좋아요.
- Diin ka makadto? 어디가요
- Makadto ako ha 장소. ___가요.
- Diin ka tikang? 어디 갔다 왔어요?
- Tikang ako ha 장소. ___갔다 왔어요.
- Malakat na ako. 나 갈게요.
- Paghinay. 조심히 가세요.

## ■ 자기소개 및 질문하기

- Ano an/it imo ngaran? 이름이 뭐에요?
- Ako hi 이름. 내 이름은 ___에요.
- Pira na an/it imo edad? 몇 살이에요?
- 나이 na ako. 나는 ___살이에요.
- Tagadiin ka? 어디서 왔어요?
- Taga South Korea ako. 한국에서 왔어요.
- Diin ka naukoy? 어디 살아요?
- Adto ako naukoy ha 장소. ___에서 살아요.
- May asawa ka na? 결혼했어요?
- Oo, mayda na. 네, 결혼했어요.
- Waray pa. Daraga pa ako. 아니오, 싱글이에요.(여자)
- Waray pa. Uilitawo ako. 아니오, 싱글이에요.(남자)
- Ano it imo trabaho? 직업이 뭐예요?
- 직업 ako. 나는 ___에요.
- Diin ka nagtatrabaho? 어디서 일해요?
- Ha 기관명. ___에서 일해요.

## ■ 마켓에서

- Mayda kamo 이름? ___있어요?
- Diin ako makapalit hin 이름? 어디서 ___살 수 있어요?
- Ano ini? 이거 뭐에요?
- Ano it rasa hini? 무슨 맛이에요?
- Tagpira ini? 이거 얼마예요?
- Kamahal man. 비싸요.
- Mayda Tawad. 깎아주세요.

## 택시에서

- Ha 장소. ___로 가주세요.
- Metro la. 미터로요.
- Ano nga oras ini maabot didto? 몇 시쯤 도착하나요?
- Para/ Dinhi la. 여기 내려주세요.

## 지프니에서

- Diin ako puwede sumakay tikadto ha 장소?
  어디에서 ___가는 지프니 탈 수 있나요?
- Makadto ako ha 장소. 저는 ___가요.
- Pira an/it pasahe? 얼마예요?
- Bayad. 돈 내요.
- Pasahe / Alayon. 전달해주세요.
- Para! 세워주세요.

## 유용한 표현

- Oo. 네
- Diri. 아니오.
- Sige. 알았어요.
- Dagmit Dagmit!/ Paspasi 빨리 빨리!
- Hinay Hinay! 천천히 천천히!
- Diba? 그렇죠?
- Gutom na ako. 배고파요.
- Busog na ako. 배불러요.
- Kapoy na ako. 피곤해요.
- Mapaso! 더워요!
- Tara! / Kadi na! 가자!
- Higugmaun ko ikaw. 사랑해요.
- Tapos na? 끝났어요?
- Gutiay la. 조금만.
- Sakto na. 충분해요.
- Anay ha/ Kadali la! 잠시만요!
- Ano an/ it imo siring? 뭐라고요?
- Nag-aano ka? 뭐해요?
- Kadi na. 이리와요.
- Diri ako maalam./ Ambot. 몰라요.

- Marasa! 맛있다!
- Mahusay/ Guwapo. 예쁘다./ 멋지다.
- Sayang! 아깝다.
- Tinuod? 진짜?
- Siyempre! 당연하지!
- Diri ako maalam./ Ambot. 몰라요. 이해 못하겠어요.
- Nangalimot ako. 잊었어요.
- Nagugupong ako. 혼란스러워요.
- Bangin. 아마도.

# 체험@필리핀 현장



## 1. 긴급 상황 시

### ❶ 현지 사무소 및 기관 연락

위급 상황 발생 시(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등) 현지 사무소 및 관리요원에게 연락하여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지로부터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도 연락한다. 신원파악을 위해 봉사단 신분증이나 기관ID를 상시 휴대하도록 한다.

■ **사무소**

- 주소 : 29/F Petron Mega Plaza, 358 Sen.Gil Puyat Avenue, Makati City
- 전화 : 02-403-9780(대표번호)
- 팩스 : 02-659-6955~6

■ **한국대사관**

-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 전화 : 02-856-9210(대표번호)

• 홈페이지 :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 **한인회**

• 주소 :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 전화 : 02-886-4848(대표번호)
• 홈페이지 : http://philippines.korean.net/

### ❷ KOICA 유숙소

유숙소는 파견국의 정세불안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의 임시 대피소 및 집결지, 지방에 체류하는 단원의 수도지역 방문 시 임시 숙소, 해외봉사단원의 친목도모(집회, 회의, 상호교류 등)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된다.

■ **주소 :** #96, Juan Luna St., San Lorenzo Village, Makati City
■ **약도 :** 산로렌조 Amorsolo Gate에서 도보 2분

### ❸ 인터내셔널 SOS(International SOS)

임지에 도착해서 응급 의료 상황 발생시 KOICA 단원은 SOS를 이용할 수 있다. KOICA 전용 응급 전화번호는 +82-(0)2-3140-1770이다. SOS에서는 의료 상담 및 예약, 긴급 의료 상황 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SOS 이용 시 개인 의료정보 열람 동의 요청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닌 경우 동의하면 된다.

## 2. 의료기관 이용방법

### ❶ 의료기관 진단에서 약 처방까지

현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현지 위생 상태와 기후로 인해 힘든 경우가 많다. 호흡기 질환 및 소화계 질환을 호소하는 단원들이 많은데 이때 SOS에 전화 상담을 하고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의 종합 병원은 개인병원이 한 건물에 모여 있다.

큰 건물 안에 수많은 의사가 개인의 간호사와 비서를 데리고 입주해 있으며 기본시설인 응급실과 약국, 실험실 등은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

다음은 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① 입구에서 가고자하는 과를 선택하고 진료실 번호를 확인한다.(이미 SOS를 통해 예약했다면 바로 해당 진료실로 가면 됨)

② 진료실에서 진료를 신청하고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는다. (초진 시)

③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반드시 요청한다.

④ 처방전을 받고 진료비를 비서에게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는다.

⑤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른 약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는다.

### ❷ 주요 병원 안내

#### ■ 마닐라 현지 병원

• 마카티 메디컬센터(Macati Medical Center)

No. 2 Amorsolo Street, Legaspi Village, Makati City / (02) 8888-999

http://www.makatimed.net.ph

• 마닐라 닥터스 병원(Manila Doctors Hospital)

667 United Nations Avenue, Ermita, Manila / (02) 524-3011

http://www.maniladoctors.com.ph/

• 메트로폴리탄 메디컬센터(Metropolitan Medical Center)

1357 G Masangkay St, Tondo Manila / (02) 254-1111

http://metropolitanmedicalcenter.rxpinoy.com/

#### ■ 마닐라 한인 병원

• 한국 병원

1715 Jorge, Bocobo City of Manila / (02) 303-6700

■ **세부(Cebu) 현지 병원**

• 세부 닥터스 유니버시티 병원(Cebu Doctors' University Hospital)

Osmena Boulevard, Cebu City / (032) 255-5555

http://www.cduh.com.ph/

※ 코리아 헬프 데스크(032) 266-2067)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청화병원(Chong Hua Hospital)

Fuente Osmena, Cebu City / (032) 255-8000

http://www.chonghua.com.ph/

• 막탄 닥터스 병원(Mactan Doctors' Hospital)

Basak, Lapu-Lapu City Cebu / (032) 341-0000/ 340-8332

http://cebudocgroup.com/mactandoctors.html

• 트래블 케어 메디컬 클리닉(Travel Care Medical Clinic)

(032) 238-1111

■ **세부 한인 병원**

• 엔젤스 메디컬

AS Fortuna Street, Cebu City

(032) 418-1838



## 3. 여가활용

### ❶ 필리핀에서 할 수 있는 운동

현지의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에 지치기 쉬운 우리 몸, 좀 더 강하게 단련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 **농구**



농구는 필리핀의 대표 운동이다. 어느 곳을 가던 농구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배드민턴**



현지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운동이다. 남녀노소 연령대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소도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잘 찾아보면 2~3곳 이상의 전용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배드민턴 클럽이 있다. 한국에 비해 싼 비용으로 레슨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장소가 없다면 집 앞에서 이웃들과 함께 해 보는 것도 좋다.

■ **헬스**



현지에서 조깅을 하고 싶은데, 안전이 걱정된다면 체육관(GYM)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러닝머신은 어느 클럽에나 다 잘 구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근력 운동기구들도 있어 근력강화도 할 수 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하도록 하자.

■ **조깅**

조깅은 이른 아침 또는 해지기 전이 좋다. 한낮에는 뜨거운 날씨로 인해 일사병이 걸

리기 쉬우니 조심해야 한다.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 또는 주변의 자연 경관을 보면서 가볍게 뛰는 것도 좋다.

■ **스쿠버 다이빙**



한국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쿠버 다이빙숍도 많아 배우는데 무리는 없다.

■ **사이클**

필리핀의 경우 뜨겁지 않은 아침 이른 시간대나 늦은 오후에 사이클 행렬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및 운전자 안전지식이 매우 미흡하여 위험할 수 있다.

■ **골프**

만약 대도시나 골프장이 완비되어 있는 지역에 있다면 한국보다 싼 가격에 레슨을 받을 수 있다.

■ **체스**



현지인들이 더운 낮 시간대에 그늘에 앉아 즐기는 체스를 한번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 **주말 나들이**

이렇다 할 스포츠를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자신의 지역에 있는 관광지 또는 자연경관을 즐겨보자. 가까운 해변 또는 공원으로의 산책은 봉사로 인해 지친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 ❷ 외국어 공부

현지어는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현지 생활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초기 기관과의 의사소통 시 현지 언어 한마디가 호감도를 높여 원활한 의사소통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현지 언어를 듣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단원들이 파견되는 지역은 보통 읍, 면(Municipality)인 경우가 많아 현지 언어를 주로 사용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할 것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타갈로그어를 공부하는 것도 추천한다. 타갈로그어는 공용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책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한 TV를 이용하여 필리핀 방송을 보다보면 현지 문화는 물론 언어실력까지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갈로그어를 배울 수 있는 개인교사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필리핀의 공용어는 타갈로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있다.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이 말의 물꼬를 트는데 사용된다면 영어는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현지어나 타갈로그어를 사용한다면 유아기 언어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각자의 영어 실력에 따라 깊이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는 기관과의 의견 조율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각자의 임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독학하는 방법과 기관 사람들이나 지인을 통해 개인교사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 ❸ 스트레스 해소법

#### ■ 욕심 버리기

KOICA 봉사단은 여타의 봉사단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영역의 담당자들이 파견된다. 그래서 좀 더 유익한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 조바심을 가지기도 하고 현장사업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욕심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기다려주면서 현재의 수준에 발을 맞추어 주는 것이다.

#### ■ 시간 알차게 보내기

단원 생활을 하다보면 한국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사정에 따라 활동하는 시간은 적고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져 시간활용에 따른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에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학업, 운동, 다양한 취미활동, 여행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 **긍정적인 인간관계 만들기**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 질 즈음이면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그리워진다. 이럴 때는 동료 단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면 좋다. 하지만 동료단원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 외에도 기관 이외에 현지인 친구를 많이 만들어 함께 음식과 정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들과 공유문화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가끔 받기만을 원하는 현지인들도 있지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자.

■ **나만의 안식처 만들기**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안식처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올 때 달려가 볼 수 있는 필리핀의 예쁜 바다와 하늘은 큰 위안이 된다.

## 4. 현지유명업소

### ❶ 마닐라

■ **쇼핑몰:** SM, 랜드마크(Land Mark), 아얄라(Ayala), M.O.A(Mall of Asia)

■ **맛집**

◎ 필리핀 현지식

• **H&E(Heaven & Egg) :** 모든 요리에 계란이 빠지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상에 남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브런치(Brunch) 메뉴가 다양하다.

• **시사이드 마켓(Sea side)** : 직접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골라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원하는 조리방법으로 주문할 수 있다. 마까빠갈 하이웨이와 바끌라란 대성당 근처에 위치해 있다. 수산시장의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면 찾아가 볼 만하다. 단 외국인의 경우 요금을 배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현지유명업소 지도

◎ 기타

• **그린마리스(Green maris hot pot) 샤브샤브** : 그린힐스 쇼핑센터에 위치한 그린마리스 샤브샤브는 2가지 종류의 국물에 다양한 재료를 선택하여 살짝 담가 익혀먹는 요리이다. 마지막에 에그 누들을 넣어 한국의 칼국수 맛을 느낄 수 있다. 각 메뉴는 100~200페소 정도이다.

• **라멘바(Ramen bar)** : 퀘존시티의 이스트우드에 위치한 라멘바는 일본라면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48시간 우려낸 국물의 진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각 메뉴는 300페소 정도이다.

• **아주타이(Azuthai)** : 마닐라에서 유명한 타이 레스토랑으로 파사이 로드(pasay road)에 위치하고 있다. 메인 메뉴로 팟 타이(Phad thai)와 카오 카피(Khao kapi), 디저트로 카오 니아오 마 무앙(Khao niao ma muang)을 추천한다.

◎ 한국식

- **까치분식 :** 다양한 분식류를 즐길 수 있으며 한국의 '김떡순'이 그리울 때 적격이다. 떡볶이와 순대 볶음이 일품이다.
- **포장마차 :**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얼큰함을 가지고 있으며 짬뽕 국물에서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현지인이 만는 깍두기와 배추김치에서 한국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
- **가야 :** 한정식 집으로 손님 접대하기에 적합하다. 본점에는 반찬들이 무료로 제공되나 체인점은 반찬이 제공되지 않는다.
- **만나 :** KOICA 단원들이 자주 애용하는 장소로 추천메뉴는 해물파전, 콩비지찌개이다.
- **기타 :** 마산, 민속생등심 등

■ **한국식품점**

- 왕마트, 서울마트 등

■ **활동물품 구입 추천장소 :** 내셔널 북 스토어(National book store), 쿠바오(Cubao), 아얄라(Ayala), 길 모어(Gil more)

### ❷ 세부

■ **쇼핑몰 :** 필리핀의 문화로 자리 잡은 몰. 세부의 대형 쇼핑몰로는 SM 시티 세부(SM City Cebu)와 아얄라 센터 세부(Ayala Center Cebu), 파크몰(Park Mall), 가이사노몰(Gaisano Mall) 등이 있다. 다양한 레스토랑, 세계적인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하게 있다. 여행 기념품 및 지역 특산물과 수공예품, 건조 과일 등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10시이다.



SM 시티 세부

■ 맛집

◎ 필리핀 현지식

- **쿰비라(Kumbira)** : 파인애플 볶음밥으로 유명한 쿰비라. 파인애플 볶음밥을 주문하면 즉석으로 파인애플 속을 파낸 후 각종 야채와 고기 등을 볶아 담아 나온다. 가격은 170페소로 저렴하며 달콤하면서도 느끼하지 않다. 후식으로 파 낸 파인애플이 나온다. / 위치 : 세부 시내 JY 스퀘어 맞은편
- **AA BBQ** : 세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오픈 에어(지붕만 있고 벽은 뚫린) 식당으로 저렴하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바비큐 맛을 자랑한다. 1,000페소 정도면 4인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포크백립, 포크/치킨 바비큐, 소시지 등과 조개, 새우 등의 해산물 요리가 메뉴로 있다. 진열대에서 메뉴를 직접 고른 후 조리해주는 방식이다. / 위치 : 체인점이어서 세부 곳곳에 있으며 세부 시티에선 라훅 지점을 추천함
- **카페 라구나(Cafe Laguna)** : 필리핀 정통음식으로 거부감 없는 가격대와 깔끔함 식당 인테리어, 외국인 손님을 위한 사진 메뉴판을 준비해 놓고 있다. 크리스피 파타 320페소, 소고기 카레카레 260페소 정도 한다. / 위치 : 아얄라, SM 몰 등에 입점
- **차콜 그릴(Charcoal Grill)** : 어학 연수생들에게 인기 있는 바비큐(BBQ) 집으로 AA BBQ보다 조금 저렴하다. 필리핀의 정취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다.
- **카오나 그릴(Kaona Grill)** : BBQ 집으로 100~200페소 사이로 그릴과 필리핀 현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 위치 : AS 포추나 로(AS Fortuna Street)
- **골든 카우리(Golden Cowrie)** :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현지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해산물, 돼지고기, 야채류 등 가격은 메뉴 당 100페소 전후다. / 위치 : 라훅 및 막탄 세이브모어 옆

◎ 기타

- **무운 카페(Mooon Cafe)** : 한국인이 많이 찾는 레스토랑 겸 바로 분위기가 세련되고 이국적인 메뉴가 많다. 가격 대비 양은 적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맛있다. / 위치 : 본점, 아이티파크, 아얄라점, 파크몰점 등

- **카사 베르데(Casa Verde)** : 스테이크와 파스타 등을 맛볼 수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대략 250페소면 먹을 수 있다. / 위치 : 오스멘자 서클(본점), 아얄라, IT 파크(IT Park)
- **레몬그라스(Lemongrass)** : 베트남, 태국 음식점으로 쌀국수, 똠양꿍, 고이꾸온 등을 맛볼 수 있으며 시트러스 & 허브 레몬에이드를 추천한다. / 위치 : 아얄라 1층
- **프레임 잇(Flame It)** : 수제 햄버거를 맛 볼 수 있는 곳으로 바로 구워주는 두툼한 소고기 패티가 일품이다. 단품으로 100페소 전후, 세트 메뉴로는 150페소 전후이다. / 위치 : SM 시티 3층, 아얄라 몰, AS 포추나 로
- **크루아 타이(Krua Thai)** : 칠리 새우, 칠리 크랩을 추천한다. / 위치 : 막탄 공항 옆 마리나몰, SM 시티에 로얄 크루아타이, 아얄라몰에 입점
- **마르코폴로 호텔 뷔페 '카페 마르코'** : 한식과 중식, 일식, 양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디저트들이 준비되어 있다. / 위치 : 세부 시티
- **임페리얼 팰리스 리조트 뷔페** : 한국인 입맛에 맞는 다양한 음식들이 마련되어 있다. 신선한 재료를 위해 세부 각 지역에서 식재료를 공수하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일부는 한국에서 공수한다. 패밀리아(Familia) 중식 1,300페소(오후 12~2시 30분), 석식 1,500페소(오후 6~10시), 세금 및 봉사료 별도이다. / 위치 : 막탄



무운 카페



프레임 잇

◎ 한국식

- **쭈꾸미(Chukumi Native)** : 세부 시내에서 한국만큼 맵고 맛있는 주꾸미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1인분에 300페소이다. / 위치 : 라훅 AA BBQ 바로 옆

- **간식촌(Snack Valley) :** 다양한 분식메뉴와 치킨 등을 판매하며 떡볶이(250페소)를 강력 추천한다. 세부 시내 500페소 이상이면 배달 가능하며, 6인 이상이면 무료 픽업 서비스도 가능하다. / 위치 : 세부 다운타운에서 아얄라 가는 길의 중간지점, 한국인 어학원 CPILS와 하버뷰호텔 옆(MJ. Cuenco Ave)
- **지부로(Ziburo) :** 한국식 분식점 겸 주점으로 라볶이와 닭강정이 추천 메뉴이다. / 위치: IT 파크 스카이라이즈(IT Park Skyrise) 빌딩
- **친구야 :** 인당 300페소에 삼겹살이 무한리필 된다. 3인 이상 무료 픽업이 가능하다. / 위치 : 세부 시티 가이사노 컨츄리몰 건너편에 있는 식당
- **돼지방(Dae Ji Bang) :** 인당 300페소로 솥뚜껑에 구워주는 무한 삼겹살집이다. / 위치: 막탄 지역 마리나몰에서 뉴브리지 지나서 톤톤마사지 옆
- **한강 :** 인당 400페소에 삼겹살이 무한리필 된다. / 위치 : 막탄 지역 마리나몰에서 뉴브리지 가기 전
- **조선 치킨 :** 망고 스퀘어 앞 3군데에 있으며 양념 및 간장 프라이드 한 마리에 550페소이다. 세부, 막탄 지역 배달 가능하다. / 위치 : 라훅, 막탄 마리바고 화이트 샌드 비치 앞(전화번호 : 032-505-8255 / 070-8625-9637 / 0915-483-7622)

■ **한국 식품점**

- **H마트 :** 총 3천여 가지의 한국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달은 물론 픽업, 드롭 서비스도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한다. 032-495-0689/ 0917-540-8282(한국인 직통) / 위치 : 막탄
- **아씨 마트(Assi Mart) :** 24시간 마트로 다양한 한국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달이 가능하다. / 위치 : 세부 시티 마볼로, 탈람반(마볼로 지점 : 032-516-7970, 탈람반 지점 : 032-516-7970)

## 5. 요리법

### ❶ 현지재료로 한국 음식 맛내기

한국에서 가깝고 타 국가에 비해 한국물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필리핀이지만 지역

간의 경제적 요인이나 한국인의 거주 유무에 따라 거주지에서의 구매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난다. 도시의 경우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는 가까운 한국 식료품점을 방문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 식료품점이 없는 군 · 구 단위의 지방에서는 한국의 그 맛을 100% 낼 수는 없지만 현지 재료를 이용하여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친목도모도 할 수 있다.

■ **김밥**


현지인과 함께 김밥 만들기

- 재료: 김 2봉지, 통단무지 반개, 계란 3개, 런천미트(luncheon meat) 1캔, 사요테(sayote) 1개, 당근 1개, 지퍼백(김발용) 등
- 만드는 방법
  - 밥은 물을 약간 적게 넣어 고슬밥으로 하고, 맛소금과 깨로 간을 한다.
  - 런천미트와 사요테, 당근 등 채 썰고, 프라이팬에 약간의 기름을 둘러 순서대로 볶는다.
  -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 프라이팬에 퍼지게 한 후, 약한 불에서 서서히 굽는다.
  - 일회용 지퍼백을 김발처럼 이용하여 쟁반 위에 놓는다.
  - 지퍼백 위에 김을 펴고 밥을 아래쪽부터 중간까지 놓고 평평하게 만든다.
  - 기타재료들을 넣고 일회용 지퍼백을 이용하여 김밥을 말아준다.
  - 참기름을 바르고 약간의 깨를 뿌려준 후 한입 크기로 자른다.
- 팁(Tip)
  - 색다른 느낌의 김밥을 원한다면 참치(Century-flake in brine, Vegetable oil)와 캉콩(Kangkong)을 이용하여 필리핀식 참치 김밥을 만들 수 있다.
  - 김밥용 김과 단무지는 한국식품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품목이다.(큰 대형 몰에 일본 김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보자)
  - 김밥용 김을 구하기 어려울 경우, 조미김을 개봉하여 상온에 두면 기타 재료를 준비

하는 동안 습기를 흡수하여 김밥을 말기 편하게 변한다. 단, 마무리 단계에서 참기름을 바르는 과정은 생략해야 한다.

– 쌀은 'Cinandomeng'이라는 이름의 최고급(First class) 쌀을 사용하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밥을 지을 수 있다.

## ■ 김치





01 02 **01, 02** 현지인과 김치 만들기

- 재료: 배추 4포기, 무 3개, 하얀색 양파, 생강, 당근 1개, 굵은소금, 마늘, PATIS(액젓) 4스푼, 고춧가루 5스푼
- 만드는 방법
  – 배추를 크기에 따라 1/4포기 혹은 1/2포기로 잘라 배춧잎 사이에 굵은 소금을 뿌린다. 배추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 절여질 때까지 기다린다.
  – 절여진 배추를 물에 2~3회 정도 헹군다.
  – 믹서에 마늘, 생강, 양파를 넣고 갈아준다.
  – 무를 채 썰어 갈아둔 재료들과 고춧가루, PATIS를 넣고 섞는다.
  – 헹구어둔 배추 잎 사이사이에 적당량의 소를 넣고 버무린다.
  – 하루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냉장 보관하여 먹는다.
- 팁(Tip)
  – 비사야 지역에서는 기온의 영향으로 인해 우기 때 배추가 많고 대부분의 상인들이 바기오에서 구매해오는 경우가 많다.

## ❷ 필리핀 길거리 음식

### ■ 따호(Taho)

아침거리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따호는 물지게처럼 생긴 은색 통에 순두부를 담아 판매하는 아침 대용 간식이다. 플라스틱 컵에 순두부와 캐러멜 시럽을 넣어 작은 컵은 5페소, 큰 컵은 10페소.



따호

### ■ 발룻(Balut)






01 02 **01, 02** 발룻

껍질을 깠을 때 탱탱한 흰자의 속살을 만날 수 있는 계란은 이제 그만~!

'발룻'이라고 외치는 상인의 계란은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껍질을 깠을 때 단백질 국물과 부리가 달린 부화 직전의 병아리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껍질에 쓰여 있는 숫자는 수정된 날짜를 말하며 14일짜리가 가장 맛있다고 한다. 단 비위가 약한 사람은 주의할 것.

### ■ 바나나큐(Banana Q), 뚜론

열대 과일이 풍부한 필리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가 있는 만큼 바나나로 만든 음식 종류도 많다. 길거리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바나나큐와 뚜론은 아침과 점심 사이의 메리엔다(Merienda, 간식)로 현지인들이 선호한다. 바나나큐는 바나나를

튀겨 설탕 옷을 입힌 것이고 뚜론은 바나나에 라이스페이퍼를 입혀 함께 튀긴 것이다. 그 외에도 까모테큐(고구마 맛탕과 유사), 까사바큐 등이 있다.



바나나큐

■ **어묵(Fish ball)**

학교 앞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을 유심히 쳐다보면 네모난 상자에 어묵을 넣고 튀겨 팔고 있는 상인을 만날 수 있다. 꼬치 하나에 10페소이며, 주 고객층은 쉬는시간(Recess) 혹은 귀가 시간의 학생들이다.

■ **부코파이(Buko Pie)**





01 02 **01, 02** 부코파이

라구나 지역의 특산물로 유명한 부코파이는 150페소로 원화로 약 3,000원 정도이다. 10조각이고 우유나 핫초코와 먹으면 한 끼 대용으로 그만이다. 약간 뜨거울 때 먹어야 부코파이의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기왕 제대로 된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부코파이계의 원조 '더 오리지널 부코파이(The original buko pie)'를 추천한다.

■ **마니(Peanut)**

한국과 필리핀의 땅콩은 크기와 먹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현지 땅콩은 크기가

작고 찌거나 튀겨 먹는다. 길거리 상인들이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5페소에 판매하며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음식이다.

### ❸ 현지음식 만들어보기

■ **우베잼(Ube Jam)**


우베잼

• 재료 : 우베, 코코넛 밀크, 네슬레 크림, 치즈(Cheeze, Eden)

• 만드는 방법

– 우베를 찜기에 넣고 젓가락이 들어갈 때까지 찐 후에 껍질을 벗겨 방앗간에서 갈아낸다. (국수 모양)

– 코코넛 밀크가 담긴 냄비에 네슬레 크림을 넣으며 약한 불에서 섞는다.

– 액체가 걸쭉해질 즈음 우베를 조금씩 넣으며 붙지 않도록 섞는다.

– 뭉친 우베가 없을 때까지 저어준 후에 유리 용기에 담고 치즈를 체에 쳐서 상단에 뿌린다.

– 하루 동안 냉장보관 후 먹는다.

• 팁(Tip)

– 우베잼은 생일 등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며 '굿럭(Good Luck)'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특별한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모양 틀에 넣어 한번 쪄주면 모양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찰진 느낌의 맛을 즐길 수 있다.

■ **피낙벳(Pinakbet)**

• 재료 : 돼지고기, 호박, 마늘종, 고추, 양파, 마늘

• 만드는 방법

–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돼지고기의 지방을 넣어 기름을 만들어낸다.

– 마늘을 볶아 향을 낸 후 양파를 넣고 볶는다.

– 잘게 자른 돼지고기를 넣고 반 정도 익을 때까지 함께 볶는다.

– 호박을 넣고 뚜껑을 덮은 후 반 정도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피낙벳

– 마늘종과 고추를 넣고 뚜껑을 덮은 후 함께 익힌다.

• 팁(Tip)

– 길거리의 야채 상인들이 1~2인분의 양을 일회용 봉지에 담아 팔기도 한다.

– 기호에 따라 돼지고기를 넣지 않으면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 **찹스위(Chopsuey)**

• 재료 : 닭가슴살 300g 혹은 새우 10개, 사요테(Sayote) 2개, 양배추 1/2개, 버섯, 당근 1개, 콜리플라워(Cauliflower), 간장 1스푼, 콩, 밀가루 1/2스푼



찹스위

• 만드는 방법

– 사요테와 양배추, 닭가슴살을 한입 크기로 썰고 당근은 채 썬다.

–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마늘과 양파를 볶는다.

– 닭가슴살과 약간의 물을 넣고 반 정도 익을 때까지 뚜껑을 덮고 기다린다.

– 사요테를 넣고 살짝 저어준 후에 뚜껑을 덮고 반 정도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 간장 1스푼 및 기타재료들을 넣고 볶는다.

– 재료들이 다 익으면, 물과 밀가루 반 스푼을 개어 찰지게 되도록 한다.

• 팁(Tip)

– 마지막 순서에서 밀가루 대신 버섯 가루를 넣으면 맛을 더할 수 있다.

■ **키닐라우 샐러드(Kinilaw Salad)**



키닐라우 샐러드

• 재료 : 참치 1/2kg, 자주색 양파 1개, 식초, 토마토 2개, 생강 약간, 코코넛 가루

• 만드는 방법

– 참치를 1×1 크기로 잘라준다.

– 양파, 토마토, 생강을 잘게 잘라준다. (0.3×0.3크기 정도)

– 마켓에서 갈아온 코코넛 가루에 식초를 적당량 부어 즙을 낸다.

– 코코넛 밀크(즙)에 썰어놓은 재료들을 넣고 섞어준다.

• 팁(Tip)

– 몰에서 코코넛 밀크를 팔고 있으나 직접 만드는 것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키닐라우 샐러드는 식초를 넣어 즙을 내는 것이 더욱 맛이 좋다.

■ **시니강(Sinigang Soup)**



시니강

• 재료 : 어류(새우, 반구스 등) 혹은 고기류(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타마린드 가루, 야채(토란, 토마토, 배추, 무 등)

• 만드는 방법

– 고기류로 만들 경우 고기와 물을 냄비에 넣고 30분~1시간 끓여준다.

– 어류로 만들 경우 무와 마늘, 양파 등을 넣고 국물을 우려내다가 어류를 넣고 끓여 준다.
– 고기나 어류를 끓일 때 야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 고추와 타마린드 가루를 넣는다.
– 고기 혹은 어류가 어느 정도 익으면 야채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10분 정도 끓인다.

• 팁(Tip)
– 기호에 따라 타마린드 가루의 양을 달리하여 신맛을 느낄 수 있다.

## 6. 필리핀의 과일



**람부탄(Rambutan)**
작은 달걀크기인 람부탄은 말레이시아 어로 '털이 있는 열매'란 뜻이다. 7~8월에 빨갛게 익으며 그 속엔 하얀 과육이 있고 약간 신맛과 단맛이 난다. 람부탄을 먹을 때는 양손으로 살짝 눌러서 당기면 깔끔하게 껍질을 벗길 수 있다. 안에 큰 씨가 있으니 주의해서 먹도록 하자.



**아티스(Atis)**
슈가 애플, 시나몬 애플이라고 알려진 아티스는 수류탄 모양의 녹색 과일이다. 8~10월 사이에 많이 수확되며 겉은 흰색이고 속에 씨가 많다. 신맛은 덜하고 단맛이 나며 과육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아티스를 고를 때는 손으로 쪼갤 수 있을 정도로 잘 익은 것을 고르도록 하자.



**망고스틴(Mangosteen)**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망고스틴은 자주색 껍질에 하얀 과육을 가지고 있다. 5~10월 사이 수확되며 고급과일의 일종이다. 매우 달콤하고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다. 잘 익은 것은 손으로도 껍질이 잘 쪼개지니 손으로 눌러봤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으로 고른다. 자주색 껍질로 인해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으니 주의하고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과육을 깔끔하게 쏙 빼먹는 재미도 느껴보자.



파파야(Papaya)
파파야는 크기나 씨의 유무에 따라 품종이 다양하다. 노랗게 껍질이 변하면 잘 익은 것으로 수분이 많고 단맛이 나며 부드러워 모든 사람들이 즐겨먹는 과일이다. 파파야의 수분 공급 및 화이트닝 성분을 이용한 비누, 샴푸, 크림 등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다.



망고(Mango)
망고는 긴 타원형의 모양으로 노란망고, 그린망고, 애플망고 등 종류가 다양하다. 노란망고는 단맛, 그린망고는 신맛, 애플망고는 잘 익었을 때 단맛이 난다. 망고는 가운데에 큰 씨가 있기 때문에 자를 때 씨를 남겨두고 세로로 양면부터 잘라야 한다.
노란망고는 색이 노랗고 검은 반점이 없으며 강한 단내가 나는 것이 잘 익은 것이다. 그린망고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어서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 눌러봤을 때 말랑한 것이 좋으나 개인취향에 따라 고르면 된다.



란조네스(Lonzones)
비타민 C가 풍부한 란조네스는 가지 하나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린 것이 특징으로 8~10월에 수확되며 얇은 껍질 속에 있는 하얀 과육은 단맛과 약간의 신맛이 난다. 최고 생산지는 다바오이다. 껍질은 만졌을 때 부드러우며 끝이 약간 뾰족한 것이 좋다. 껍질을 깔 때 하얀 즙 같은 것이 나오는데 매우 끈적이니 주의하도록 하자.



두리안(Durian)
과일의 왕으로 불리는 두리안은 겉 표면이 두껍고 뾰족한 가시들로 둘러 쌓여있으며 부드러운 과육이 칸칸이 나뉘어 있다.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그 맛은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고급과일이다. 껍질이 황금색을 띠고 갈라진 틈 사이로 냄새가 강하며, 가시가 말랑하거나 가시와 가시 사이를 손으로 잡고 조였을 때 닿는 것이 익은 것이다.



칼라만씨(Calamansi)
500원 동전크기로 귤 모양의 초록색을 띄는 깔라만시는 일년 내내 수확되며 신맛이 매우 강하고 과즙이 많다. 대부분 요리할 때 사용되거나 감기 또는 소화불량 시 과즙을 뜨거운 물에 따서 마시는 등 민간요법으로도 사용된다.



**아보카도(Abocado)**
영양가가 많기로 알려진 아보카도는 껍질이 초록색과 자주색을 띄고 둥글거나 타원모양의 서양 배처럼 생겼다. 안에는 크고 단단한 씨가 있어 씨를 두고 칼을 둘러 썬 후 가볍게 비틀면 반으로 가를 수 있다. 아보카도는 대부분 샐러드 또는 생식으로 많이 이용하며 특히 필리핀에서는 아보카도를 갈아 주스로 마신다.



**구아바(Guava)**
계란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모양의 초록빛을 띠는 구아바는 단맛이 나며 과즙이 많고 비타민 C가 많다.
어디든 잘 자라며 생식 또는 잼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잭 푸르트(Jack Fruit)**
큰 것은 25kg에 육박할 정도로 큰 과일로 겉은 밋밋하고 긴 타원형으로 생겼다. 과육은 노란빛을 띄는데 향기가 좋진 않으나 단맛이 매우 강하며 안에 씨는 삶거나 구워서 까먹으면 고구마 맛이 난다. 너무 크기 때문에 작게 조각내서 팔기도 하며 현지인들은 과일보다는 코코넛 밀크를 넣은 요리에 많이 이용한다.



**삼파록(Sampaloc)**
땅콩처럼 긴 모양에 강한 신맛을 가진 삼파록은 필리핀의 대표 스프인 시니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식보다는 요리에 주로 사용된다.



**치코(Chico)**
둥근 공 모양으로 껍질은 부드러운 갈색이며, 과육은 잘 익은 감의 맛이 난다. 껍질 채 먹을 수도 있고 11~12월까지의 짧은 수확기간을 가진다.



**리치(Lizhi)**
람부탄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한국에서 냉동 과일로 많이 접할 수 있다. 리치는 빨간 껍질에 반투명의 과육 그리고 큰 씨가 있다. 당도가 높아 대부분 생식으로 즐기나 음료를 만드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산톨(Santol)
야구공만한 산톨은 겉은 하얀 털이 있고 노란빛을 띤다. 껍질을 반으로 가르면 하얀 과육이 있는데 단맛과 신맛이 강하며 씨와 분리되지 않아 씨채로 입안에 넣고 먹되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캔디처럼 즐길 수 있음)

## 7. 유용한 사이트

### ❶ 은행

- BDO : http://www.bdo.com.ph/personal.asp
- 유니온 뱅크 : http://www.unionbankph.com
- 메트로 뱅크 : http://www.metrobank.ph
- 랜드 뱅크 : http://www.landbank.com
- 로빈슨 뱅크 : http://www.robinsonsbank.com.ph
- 차이나 뱅크 : http://www.chinabank.com.ph
- 씨티 뱅크 : http://www.citibank.ph
- 그린 뱅크 : http://www.greenbank.com.ph

### ❷ 항공사

- 필리핀 에어라인 : http://www.philippineairlines.com
- 에어필 익스프레스 : http://www.airphilexpress.com
- 세부 퍼시픽 : http://www.cebupacificair.com
- 제스트 에어 : http://www.zestair.com.ph/index.html

### ❸ 한인회

- 필리핀 한인회 : http://yellowbook.korea.com.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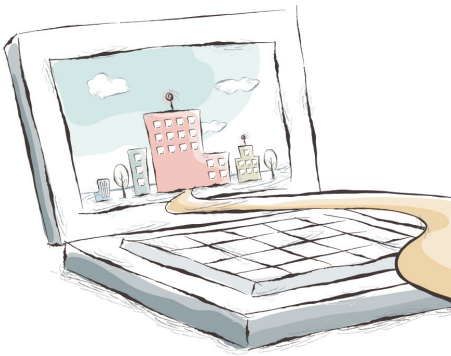
- 다바오 한인들의 모임 : http://cafe.naver.com/goodmorningdavao.cafe
- 마닐라 서울(교민신문) : http://www.manilaseoul.com

### ❹ 필리핀에 관한 모든 것

- 주간 마닐라 : http://www.weeklymanila.com
- 야후 필리핀 : http://ph.yahoo.com
- 필리핀 기상청 : http://www.pagasa.dost.gov.ph

### ❺ 여행 관련 정보 사이트

- 호텔
  - 아고다 : www.agoda.co.kr
  - 호텔스 닷컴 : kr.hotels.com
  - 호텔엔조이 : www.hotelnjoy.com
  - 호텔콤바인 : http://www.hotelscombined.co.kr
  - 아시아트래블 : http://www.asiatravel.com
- 항공사 (저가 티켓을 찾아주는 사이트)
  - 스카이 채널 : http://www.skyscanner.kr
  - 이북커스 : http://www.ebookers.com
  - 이드림스 : http://www.edreams.net
  - 유로스카이 : http://www.eurosky.co.kr
  - 월드윙스 : http://www.worldwings.co.kr



## 8.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맺기

원활한 단원 활동을 위해서는 기관과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 되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한 팁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❶ 기관과 협의를 하여 주중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한다.**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신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기관에서 단원의 행동 동선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된다.

**❷ 점심 식사와 간식은 기관 동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한다.**

바쁜 일상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을 함께 한다면 금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❸ 인사는 기본!**

하루 수차례 마주치더라도 늘 웃으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인사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가장 기본이다. 인사를 생활화하자!

**❹ 일정은 미리 미리 확인하자.**

기관 일정을 기관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더라도 매월 초와 매주 월요일에 스스로 기관의 월간 및 주간 일정을 확인한다. 현지인들도 일을 할 때는 바쁘다. 일정을 일일이 말해주지 않으니 후에 섭섭함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 좋다.

**❺ 기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월별, 주별로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간단한 정장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즐기라.

**❻ 출장이나 여행 시 특산품 (Pasalubong)을 챙기자.**

다녀온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비스켓, 캔디, 열쇠고리 등의 가벼운 선물)을 사다 주면 친분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현지 특산품 가게

**❼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한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필리핀 사람 대부분은 페이스북을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종종 페이스북의 이용여부를 물어보는데 미리 가입해두어 온라인상으로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

**❽ 가족처럼 대하자.**

언어가 잘 통하지 않더라도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살갑게 대하며 가족처럼 대하도록 하자. 타국에 홀로 있는 우리를 위해 위급한 상황에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주는 보호자, 많은 시간과 추억을 함께 나누는 친구, 가족이 되어 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 9. 기타

**❶ 기관 외의 인간관계 쌓기**

기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단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담스러운 요청들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기관 외의 공동체와 관계 맺기를 권한다.

■ **종교 활동**

일반적으로 어느 종교 활동이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다. 처음에는 언어적인 장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언어는 하나의 수단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타지에 있으면서 어려운 점들을 나누고 현지 사람들의 생활이나 그들의 고민들을 들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기회도 생긴다.

■ **동호회 활동**

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동호회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주말을 이용한 자전거 동호회, 동굴 탐험 동호회 등 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동호회를 찾기가 어렵거나 선택의 폭이 적다면 운영자가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필리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영역인 요리 동호회는 어떨까?

■ **기타 활동**

한국에서 직장생활에 치우쳐 취미생활을 갖지 못했다면 단원 생활 중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배워보기를 권한다. 필리핀에 있다는 장점을 살려 현지에서만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보자. 한국처럼 학원이나 협회를 찾기 쉬운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없을 경우 직접 찾아다녀야만 한다. 기관이나 집 근처에서 워크숍(workshop)을 하는 전문가들을 찾을 수 있으니 지역 내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자.

### ❷ 거주 주의사항

- 철저한 문단속은 기본이며 KOICA에서 제공하는 안전물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방범창은 기본으로 설치한 뒤 창문에 경보기를 장착하고 보조자물쇠를 활용하도록 한다.
- 창문에는 커튼을 설치하여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한다.
- 필리핀은 정전이 잘 된다. 비상시를 위해 초나 손전등 등을 소지하자.
- 사전 약속된 경우가 아니면 낯선 사람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으며 약속된 경우에도 신분확인을 거친 후에 문을 열어주도록 한다. (체인 자물쇠를 장착하여 문을 열지 않고도 방문자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 외출 후 귀가 시 창문이나 현관이 열려져 있으면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웃이나 경찰의 도움을 청하여 함께 들어가 확인하도록 한다.

### ❸ 스스로 지키기

- 오후 6시경만 지나면 어두워지는 현지의 실정에 따라 어두워졌을 때 혼자서 외출하는 일은 없도록 하며 유흥업소의 출입은 삼가는 것이 좋다.

- 현지에서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현지인(기관 사람들이나 현지 친구들)을 꼭 만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 기관 배치 시 지역의 시장, 경찰청장 등을 만나 인사할 때 명함을 받아두어 급한 일이 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 거주 지 근처의 경찰서, 정부 기관, 병원 등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어느 정도 현지에 적응해서 익숙해질 때가 방심하게 되는 때이다. 해외에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언제나 잊지 말자.
- 많은 현금이나 귀중품 등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도록 하고 돈을 분산하여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
- 백팩을 메고 다닐 경우 보조 자물쇠로 채우고 다니는 것이 좋다. 가방은 항상 자신의 몸 앞에 두도록 한다.
-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KOICA 사무소, 소속기관 및 가족, 동료에게 여행기간 및 여행 중 비상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떠나도록 한다.
- 휴대폰을 분실 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장 가까운 단원 및 사무소 직원 전화번호를 암기 또는 수첩에 적어둔다.
- 현지인과의 금전적 거래는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 히치하이킹이나 차량동승은 하지 않는다.
- 전화번호는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알려준다.
- 모기에 물려 뎅기열이나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외부활동 시에는 모기기피제나 긴 팔을 착용하도록 한다.
- 유난히 길거리 개나 고양이가 많은 필리핀이다. 광견병에 걸리지 않도록 길거리 개나 고양이를 귀엽다고 만지는 행동은 삼가하고 동물에 물렸을 경우는 세제(퐁퐁)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씻고 감염이 의심되면 병원에 간다.
-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껴졌을 땐 바로 SOS서비스를 활용하여 적절한 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이 많고 방어운전을 하지 않으므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항상 교통안전에 주의한다.
- 차도 무단횡단 금지
- 차도 횡단 시 차량 진행 유무 확인 후 횡단
- 오토바이(하발하발) 운전 및 탑승 금지

■ 찌는 듯한 더위로 체력이 저하되기 쉬운 필리핀.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영양가 있는 식사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
- 한 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할 것
-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할 것
- 야외에서 활동할 시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할 것
- 식사는 균형 있게 섭취하고 탄산음료나 커피보다는 물을 규칙적으로 자주 마실 것
- 물은 증류수(Distilled Water)나 정수된 물(Purified water)을 사서 먹도록 하고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릴 것
-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조리 기구를 청결하게 사용할 것

### ❹ 현지문화 트렌드

현지 도시 사람들은 큰 몰을 이용하지만 군구 지역 사람들은 중고매장 혹은 벼룩시장인 '우클레이-우클레이(ukay-ukay)'라는 매장을 자주 찾는다. 이곳의 옷들은 보통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 그 외에도 현지 브랜드 중에 현지인 및 외국인들에게 선호되는 로컬브랜드도 많다.

■ **유니섹스 캐주얼**
- 옥시겐, 펜숍(Oxygen, Penshoppe)
- 벤치 라이프 스타일(Bench life style+Clothing, Human)
- 폴디드&헝(Folded&Hung)

■ **여성의류**

- 카미세타(Kamiseta)
- 말디타(Maldita), 막스(Mags), 줄라이(July), 왓 어 걸 원츠?(What a girl wants?, WAGW)
- 서니사이드업(Sunny side up) : 태국 제품을 수입판매
- 바요, 플레인 앤 프린트(Bayo, Plains and Prints)

■ **남성 의류**

- 레가타(Regatta)
- 멘탈(Mental)
- 아트워크(Artwork) : 대학생들이 직접 디자인, 프린팅하여 판매

■ **액세서리**

- 셀린(Celine)
- CMG : 홍콩, 말레이시아 브랜드 수입판매
- 소 F.A.B(So F.A.B)

■ **파티복**

- 어케이전스(Occasions), 사벨라(Sabella)

■ **비치웨어 및 속옷**

- 이즈이즈(Isis), 핫핑크(Hotpink)

### 한국에는 한복이 있듯이 필리핀에는 바롱(Barong)이 있다!

바롱은 필리핀 사람들의 전통의상으로 남성의 것은 바롱 타갈로그(Barong Tagalog), 여성의 것은 바롯 사야(Baro't Saya)라고 부른다. 바롱을 만드는 천은 마닐라 삼으로 만든 마직물, 바나나 섬유인 쥬시, 파인애플의 섬유인 피나를 엮어 쓴다.

축제, 기념일, 결혼식 등에서 바롱을 입은 현지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서구화된 보편적인 평상복을 주로 입지만 중요한 자리에는 필리핀 전통 상의인 바롱을 즐겨 입는다.

수가 수작업으로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가의 바롱이 되는데 비싼 것은 한 벌에 몇 만 페소를 호가한다고 한다.



# 제 3 부



# 나눔 셋

같이 웃는 즐거운 내일,
필리핀 즐기기

PART Ⅰ. Phil 좋지 아니한가!

PART Ⅱ.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 Phil 좋지 아니한가!



## 1. 마닐라(Manila)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는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들이 근교에 있어 둘러볼만한 곳이다. 또한 마닐라에는 다양한 몰이 있어 쇼핑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 ❶ 타가이타이(TagayTy)

타가이타이는 여전히 활동 중인 활화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으로 알려져 있다. 칼데리호인 타알 호수 안에 형성된 이중식 화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 ■ 가는 방법

파사이 BLTB 버스터미널에서 탈리세이(Talisay)행 버스를 타고 타가이타이시에서 내린다. 혹은 MRT 타프트(Taft)역 뒤의 버스터미널에서 타가이타이행 버스를 탄다. 피플스파크를 들려 화산섬의 경치를 보기를 원한다면 올리바렛쯔에서 내려 지프니를 탄다.

#### ■ 이용료

타가이타이는 탈리사이에서 방카를 타고 화산섬으로 20분 정도 들어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이다. 방카는 6명을 기준으로 1대당 1,500페소에 대여가 가능하다. 화산섬으

로 올라갈 때에는 도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말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말 대여료 450페소, 마부의 팁은 50페소로 정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 경관




01 02 **01** 화산섬 정상 **02** 화산섬 올라가는 길

■ 주의사항

현재 타가이타이 내에 방카와 말 대여료에 팁을 포함하여 정찰제로 운행하고 있으나 가이드비용이라 속여 가격을 높게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리조트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화산섬으로 올라갈 때는 유황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 ❷ 팍상한(Pagsanjan) 폭포

필리핀의 7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히는 팍상한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와 조성모 뮤직비디오의 배경으로 유명하다. 폭포 자체는 유명세에 비해 감탄할 만큼 웅장한 멋은 없지만 종착지에 도착하여 팍상한 폭포의 거센 낙수를 맞는 재미는 색다르다. 또한 폭포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타고 가면서 깊은 골짜기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 가는 방법

마닐라의 파사이 버스터미널 또는 쿠바오의 버스 터미널에서 빅토리 라이너 버스나 트라이트란 버스, BLTB 버스를 이용한다. 산타크루즈에 팍상한으로 가는 지프니들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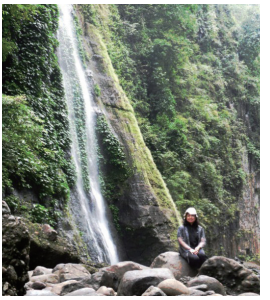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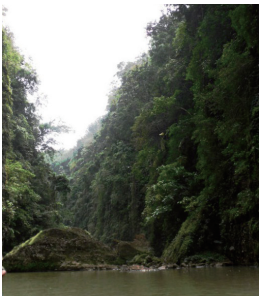
기 때문에 버스 터미널에서 산타 크루즈행 버스를 탄다. 버스요금은 마닐라에서 산타크루즈까지 왕복 약 140페소 정도다. 2시간 정도 가면 산타크루즈라는 도시가 나오고 내려서 팍상한으로 가는 지프니를 갈아탄다. 지프니 요금은 산타크루즈에서 팍상한까지 20페소 정도로 총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 ■ 이용료

방카라는 배를 타고 폭포로 가는 길의 절경을 감상한 뒤 마지막 지점인 팍상한 폭포에 도달하며 약 20미터의 계곡에서 쏟아지는 폭포를 눈앞에서 감상하기 위해 뗏목을 타고 폭포 밑까지 다녀오는 코스이다.

보트는 2명 기준으로 1척에 1,160페소이며 나무로 만들어져 바닥에 쿠션방석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여료 30페소를 내야 한다. 뗏목비는 1인당 70페소이다.

### ■ 경관

01 02 03

01 팍상한 폭포 02 폭포 가는 길 03 팍상한 절경

### ■ 팁(Tip)

팍상한 폭포 여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행사를 이용하여 팍상한과 88온천을 하루에 다녀오는 코스를 추천한다. 마닐라에서 팍상한까지의 소요시간이 길고 마닐라로 돌아오는 길목에 88온천이 있기 때문에 여행 지친 피로를 온천욕을 통해 풀 수 있다. 여행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1인당 3,300페소에 데이투어(Day tour)를 즐길 수 있다.




01 02 **01, 02** 88온천

### ❸ 히든 밸리(Hidden Valley)

마닐라 주변 최대의 삼림욕 산책 코스로서 온천, 열대 정글이 울창하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 있게 삼림욕을 즐기기에 좋은 코스이다. 히든 밸리 입구에서 2㎞에 이르는 계곡이 있으며 그 곳까지 맨발로 걸으면 좋다. 주변에는 열대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즐비하며 백년 이상 된 고목들이 둘러쳐 있다.

#### ■ 가는 방법

마닐라 파사이 터미널에서 루세나(Lucena)행 버스를 타고 알라미노스(Alaminos)에서 내린 다음 트라이시클로 히든 밸리로 이동하는 방법이다.

#### ■ 이용료

총 입장료는 $100로 입장료 및 필리핀식 중식 뷔페가 포함된다. 수영복을 입고 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미소지자에게 50페소에 수영복을 대여해준다.

### ❹ 빌라 에스쿠데로(Villa Escudero)

에스쿠데로(Escudero) 가족들이 직접 관리, 소유하고 있는 빌라 에스쿠데로는 식민지 시대 때 조성된 코코넛 농장으로 마닐라 남쪽 라구나에 위치해 있다.

■ **가는 방법**

마닐라 쿠바오 버스 터미널에서 산파블로행 버스를 타고, 약 2시간 30분정도 되면 길 바로 앞에 빌라에스쿠데로란 이름이 보일 때 하차한다.

■ **이용료**

버스요금은 약 140페소이며 트라이시클을 타고 1km 정도 가면 빌라에스쿠데로의 입구가 나온다. 박물관, 우마차, 점심, 뗏목, 쇼 관람, 수영이 포함된 코스로 성인 1인기준 940페소이다.

■ **팁(Tip)**

점심을 마치면 토,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필리핀 전통 민속공연을 하므로 가능한 토, 일요일에 가는 것이 좋다.

### ❺ 100 아일랜드(One Hundred Island)

■ **가는 방법**

마닐라 다우터미널에서 알라미노스행 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중간에 탈락이라는 도시에서 20분 동안 정차하였다가 이동하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버스비는 164페소이다.

■ **이용료**

100 아일랜드까지는 방카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데 사이즈에 따라 1~5인 기준 800페소, 6~10인 기준 1,000페소, 11~15인 기준 1,100페소로 세 종류가 있다. 거기에 보트맨 옵션을 추가한다면 보트비가 각각 1,400페소, 1,800페소, 2,000페소로 가격이 높아진다. 그 외에 환경세 40페소, 수수료 100페소를 지불해야 한다. 보트맨 옵션이란 3개의 섬(퀘존, 칠드런섬, 가버너섬)만 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섬을 다니도록 루트가 짜인 것이다.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흥정이 가능하다.

알라미노스 시내에서 트라이시클로 10분을 가면 루캡(Lucap)이라는 공식 안내소에

도착하는데 섬의 입장료로 20페소를 지불해야 한다.

### ❻ 유적지 및 박물관

■ **코레히도르(Corregidor)**

마닐라에서 서쪽으로 45km, 바탄반도에서 6km 떨어진 마닐라만에 있는 올챙이 모양의 작은 섬이다. '코레히도르'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스페인어로 스페인 통치 시대에 외국선의 입국관리가 이루어졌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 전쟁 때 사용된 포대나 병사터가 남아있고 전쟁 기념관도 있다. 기차를 타고 코레히도르섬을 순환하는 코스이며 영어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필리핀 연합군이 병기고로 만든 말린타 터널(Malinta tunnnel)과 등대(Light house), 태평양전쟁기념관(Pacific war mamorial)은 꼭 들려봐야 할 관광 포인트이다.

■ **인트라무로스(Intramuros)**

1571년에 스페인이 필리핀을 통치하기 위해 건설한 성곽도시(The walled city)로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통치시대에는 스페인사람과 혼혈인만 거주하고 필리핀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은 밖에서 거주한 역사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근처에 차이나타운이 자리 잡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1945년에 일본군에 대한 미국의 포격으로 많은 부분 파괴되었으나 1979년 사적지 및 관광지로서 자리 잡기 위해 성벽과 성문, 저택 등이 복구되었다.

사람이 많은 마닐라의 느낌과는 다르게 한적한 이국 마을 분위기로 스페인식 석조 건축물, 산티아고 요새(Fort Santiago), 리잘성지(Rizal Shrine) 박물관, 성어거스틴(St. Augustin) 성당 등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경험할 수 있다. 단,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유럽식 마차는 바가지를 쓸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 **기타**

아얄라(Ayala) 박물관,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박물관

## 2. 세부(cebu)

### ❶ 시티투어(City Tour)

■ **산 페드로 요새(Fort San Pedro)**



산 페드로 요새

1565년에 지어진 필리핀에서 가장 작고 오래된 요새이다. 규모는 작지만 필리핀의 역사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페인 통치 말기에 해당하는 1898년에는 세부의 독립 운동 세력에 의해 점령되었다. 미국의 식민지 시대에는 군막사로 쓰였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는 포로수용소로 쓰였다. 현재 요새 내부에는 관광안내소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광장이 있다. 스페인의 초대 총독 레가스피가 반란군 방어를 위해 구축한 요새로 이곳의 이름은 레가스피가 태평양을 횡단했던 군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현재는 산책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 **마젤란 십자가(Magellan Shrine)**



마젤란 십자가

1521년 4월 21일 포르투갈 개척자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꽂은 마젤란 십자가는 세부의 추장 라자 후마본과 그 일족들이 필리핀 최초로 페드로 발데라마 신부에게 세례 받은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1525년부터 1740년 아우구스티누스 교단의 신부들이 이 십자가를 위해 개방된 성전을 건축했지만 원주민들이 이 십자가의 기적적 효험을 믿고 십자가에서 조각들을 떼어가자 정자와 같은 보호 구조물을 세웠다. 원래의 십자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는 목재로 이를 덧씌운 상태이다. 산토 니뇨 성

당 옆 정자에서 볼 수 있다.

■ **산토 니뇨 성당**(Basilica Mindoro del Sto. Niño)


산토 니뇨 성당

1565년 프레이 안드레스 드 우르다네타 신부에 의해 지어졌으며 세부의 수호신인 검은 산토 니뇨(아기 예수)의 이미지가 발견된 위치에 건축되었다. 마젤란은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유물인 산토 니뇨 교회를 라자 후마본왕의 부인인 주아나 여왕에게 세례 선물로 주었다. 산토 니뇨 상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필리핀을 떠난 1565년, 반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미구엘 로페즈 데 레가스피의 병사들이 일으킨 화재장소에서 나무 상자에 봉해져 보관된 채로 발견되었다. 오래 동안 발생했던 많은 화재와 다른 재난에도 사라지지 않은 산토 니뇨상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으로 추앙되고 있다.

■ **카사 고로르도 박물관**(Casa Gorordo Museum)

세부 최초의 필리핀 추기경인 주안 고로르고(1862~1934)의 자택이며 현재 19세기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여주는 주택 박물관으로 복원되었다. 도시 중심 로페즈 자에나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세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와 의류,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 입장료는 50페소이다.

■ **라푸-라푸 기념비**(Lapu-Lapu Monument)


라푸-라푸 기념비

원주민의 자유를 위해 스페인 침략자들에게 항거했던 추장이자 영웅 라푸-라푸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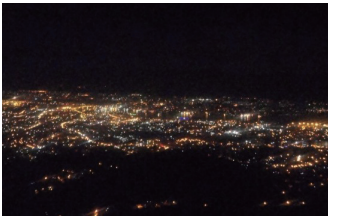
상기념비이다. 막탄섬 푼타 엔가뇨 로드(Punta Engano)에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반대편 광장에 이곳에서 라푸라푸에게 살해당한 마젤란의 동상이 있다.

■ **도교 사원(Taoist Temple)**

도교사원은 세부의 비버리힐즈라 불리는 고급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 화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노자를 모시는 사원이라 필리핀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중국사원의 느낌이 살아난다. 특유의 경쾌한 붉은 색과 각종 원색의 화려한 채색이 어우러져 있어 신선하다. 고지에 위치한 관계로 사원 내의 최상부에 이르면 세부시와 막탄섬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동시에 사원까지 가는 길 옆으로 즐비한 화교들의 고급저택들을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다.

■ **탑스(Tops)**

세부시 전체와 막탄 섬, 올랑고 섬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주간에는 정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야경이 특히나 아름답다. 대중교통편이 없으므로 택시 등을 대여해야 한다. 입장료는 100페소이다.



탑스

■ **IT 파크(아시아 타운)**

24헥타르에 이르는 꽤 넓은 규모로 다국적 기업들의 콜센터가 주를 이루는 아시아타운(Asiatown)은 10층 정도의 대형건물들을 중심으로 가로수가 잘 정리된 깔끔한 거리로 많은 먹을거리와 카페, 바가 입점해 있다. 커피빈, 스타벅스부터 시작해서 졸리비,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 유명한 현지 식당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콘셉트의 카페와 바가 위치해 있다.




IT 파크

### ❷ 가볼 만한 주변 섬

■ **모알보알(Moalboal) 섬과 가와산 폭포(Kawasan Falls)**



가와산 폭포

세부에서 남서쪽 약 90km 떨어진 모알보알은 1980년대 초반부터 가장 인기 있는 아시아 최고의 다이빙 명소였다. 시기를 잘 맞추면 고래상어를 만날 수 있다. 유명한 페스카도르 섬에서의 다이빙과 인근 가와산 폭포를 추천하다. 가와산 폭포는 3개의 폭포가 있는데 맨 위의 깨끗한 폭포에서는 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가장 아래에 있는 폭포에서는 뗏목을 타고 폭포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 세부 남부 터미널에서 모알보알행 버스 탑승, 밴(V-Hire)이용

■ **반타얀(Bantayan) 섬**





01 02 **01, 02** 반타얀 섬

세부 지방의 서 · 북부 해안에 밀집된 15개 섬 중 한 곳인 반타얀 섬은 세부에서 약 10Km 가량 떨어져 있다. 마드리데호스와 산타페, 반타얀 3개 지역으로 이루어진 이곳의 매력은 하얀 모래사장과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다이다. 물이 맑고 예쁜 물고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호핑 투어를 추천한다.

• 세부 북부 터미널에서 하그나야(Hagnaya) 항구까지 버스 탑승(3시간 소요), 항구에

서 페리 이용(1시간 소요), 2011년 4월 25일부로 직항 경비행기 운항, 비행시간 35분, 편도 1,500페소

■ **말라파스쿠아(Malapascua) 섬**

'불행한 크리스마스'라는 뜻의 말라파스쿠아는 시간조차 멈추어버리는 파라다이스이다. 백사장 해변과 수정처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이곳의 서부 해안지역은 특히 수영과 스노클링을 하기에 좋다. 세부 북단과 레이테 서부에 위치한 이곳까지는 세부에서 육로로 약 3시간 걸린다.

- 세부 북부 터미널에서 마야(Maya) 항구까지 버스 탑승, 항구에서 배를 이용 섬까지 간다.

■ **카모테스(Camotes) 섬**

세부 본섬의 동부 쪽에 있는 화이트 비치와 에메랄드 빛 바다가 자랑으로 휴양지로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아 괜찮은 숙박시설이 많지 않다. 산티아고베이 가든 & 리조트(Santiago Bay Garden & Resort)를 추천한다.

- 다나오(Danao)에서 수퍼 셔틀 페리(Supper Shuttle Ferry)를 타고 2시간 정도 들어가거나 세부 피어2에서 EB 아즈나 시핑(EB Aznar Shipping)을 이용한다. 약 4시간 소요.

■ **수밀론(Sumilon) 섬**

남부에 위치한 조용한 섬 수밀론에는 계절에 따른 형태와 위치가 변하는 모래톱이 있다. 24헥타르에 불과한 작은 섬은 이 지역 최초의 해양 보호 구역으로서 1974년 어류 보호수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섬 주변의 바다 속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최적인 다이빙 포인트로 손꼽힌다.

- 세부 남부 버스터미널로 가서 오슬롭행 버스를 타고 3시간정도 소요, 방고콘 바랑가이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들어가면 도착

## 3. 그 외 지역

### ❶ 보라카이(Boracay)





01 02 **01, 02** 보라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아름다운 보라카이의 태양, 바람이 시원한 감촉으로 와 닿는 부드럽고 하얀 보라카이의 화이트 샌드 비치. 보라카이는 이처럼 뜨거움과 시원함이 공존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청록빛깔의 바다와 4km에 달하는 눈처럼 곱고 깨끗한 백사장이 있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는 필리핀의 주요 관광지로 발돋움했으며 고급 호텔, 음식점, 바(Bar)에 수천 명의 필리핀과 외국인들을 매혹시키고 있다.

### ❷ 다바오(Davao)





01 02 **01, 02** 다바오

다바오 시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생활의 도시이다. 필리핀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풍부한 물, 비옥한 산과 계곡의 천연 자원으로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다. 국가의 자부심인 아포 산(Mt. Apo), 필리핀에서 제일 높은 왈링왈링(Walingwaling), 난초의 여왕(Queen of Orchids), 필리핀 국조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독수리인 필리핀 독수리, 열매의 왕 두리안(Durian), 축제의 축제(Festival of Festival)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세계 보건 기구는 다바오의 물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식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다바오 시는 미술, 문화, 여러 부족의 문화유산들이 풍부하다.














01 02
03 04
05

**01, 02** 파라다이스 비치 리조트
**03, 04** 필리핀 이글 센터
**05** 에덴 내추럴 파크

### ❸ 보홀(Boh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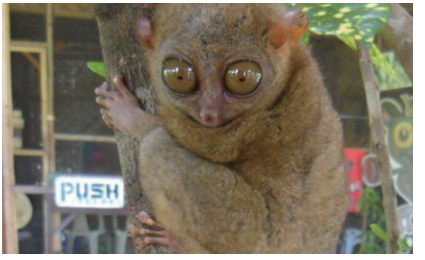
세부항구에서 고속페리(Super Cat, Weesam, Ocean Jet)를 이용하면 2시간 만에 보홀 항구에 도착한다. 현재는 경비행기도 운행하여 세부에서 보홀 까지 30분 만에 도착한다. (편도 1,400페소) 승용차나 택시(2,000페소), 밴(3,500페소)을 렌트하여 6시간 정도 소요되는 육상투어를 할 수 있다. 방카(현지 대나무 배)를 렌트(1,800페소)하여 돌고래 와칭과 스노클링, 발리카삭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호핑 투어를 할 수 있다.

■ **초콜릿 힐(Chocolate hills)**

탁빌라란에서 55km 거리의 카르멘 시에 위치하며 보홀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

■ **필리핀 안경 원숭이(Tarsier)**

필리핀에서 발견되는 희귀동물 중 하나가 보홀의 마호가니 숲에 서식하는 타시어 원숭이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유인원 종류로 알려져 있다.




01 02
03 04

01 초콜릿 힐 02 필리핀 안경 원숭이
03 로복강(Loboc River) 04 알로나 해변(Alona Beach)

### ❹ 카미긴(Camiguin)





01 02 **01** 선큰 세메터리(Sunken Cemetery) **02** 화이트 아일랜드(White Island)

세부항구에서 배를 타고 간다(12시간 소요). 현재는 경비행기 운행(40분 소요, 편도 2,000페소)도 하고 있다고 한다. 보홀의 하그나(Jagna)항에서 파라 시 캣(Para Sea Cat)을 타면 2시간, 슈퍼 셔틀 페리(Super Shuttle Ferry)를 타면 4시간이 소요된다. 보홀에서 경비행기를 타면 30분이 소요된다.(편도 1,500페소) 필리핀의 마우이섬으로 불리는 작은 섬으로 곳곳에 볼거리들과 즐길 거리들이 있다. 멀티캡(1,500페소), 밴(2,500페소)을 대여하여 데이투어를 할 수 있다.

### ❺ 팔라완(Palawan)






01 02 **01** 코론베이(Coron Bay) 코론 산호섬
**02**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Puerto Princesa Subterranean River National Park)

마닐라에서 팔라완의 푸에르토 프린세사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5분, 선편으로 20시간 소요된다. 소리아노(Soriano Air), 퍼시픽(Pacific Air), 아시안 스피릿(Asian Spirit)

및 시 항공(Sea Air)에서 전세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쿠요(Cuyo), 코론(Coron), 엘 니도(El Nido) 등 원하는 섬까지 직접 갈 수 있다.

## 4. 지역별 피에스타

### ❶ 블랙 나자린(Black Nazarene) 축제 / 1월 9일
**: 키아포(Quiapo),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마닐라 시내 키아포 성당에 모셔진 무릎 꿇은 검은 예수상(Black Nazarene)을 들고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영원하라"를 외치며 퍼레이드를 갖는다. 병을 고치는 신비한 효험이 있다는 예수상을 만지려고 달려든다. 미사 후 마지막에 몸을 닦는 의식 때 무슨 천이든지 이 십자가에 댄 것으로 온몸을 문지르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병도 고치는 신통력도 갖게 된다는 믿음을 마닐라 시민들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❷ 디낙양(Dinagyang) 축제 / 1월 25~26일
**: 일로일로 시(Iloilo City)**

이 무렵 주말이면 일로일로시의 사람들은 일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연례 축제에 참여한다. 아무도 이들을 막지 않으며 일상의 지루한 옷을 벗어 버리고 몸에 검은 칠을 한 뒤 '아띠(Ati)' 전사의 복장으로 갈아입는다. 일로일로 주민들은 둥둥 울리는 북장단에 맞추어 방패와 창을 들고 디낙양을 축하하여 전속력으로 뛰쳐나간다.


디낙양 축제

### ❸ 아티-아티한(Ati-Atihan) 축제 / 1월 셋째 주 : 아클란(Aklan)의 칼리보(Kalibo)

산토 니뇨를 경축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로 매년 1월 셋째 주면 아클란의 칼리보는 축제 분위기에 물든다. 관광객들이 아클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니그리토족(흑인)처럼 분장을 하고 토속 의상과 액세서리를 착용한 후 전통적인 축제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센터에서 개최되는 폐막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 ❹ 시눌룩(Sinulog) 축제 / 1월 셋째 주 일요일 : 세부시(Cebu City)





01 02 03

**01, 02, 03** 시눌룩 축제

세부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의 축제라 할 수 있다. 두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후퇴하는 춤사위가 독특하며, 이를 통해 해변의 어린 예수를 격려한다. 이 시눌룩 축제는 10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비사야 지역의 일부에서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북장단에 맞추어 기도의 춤을 추며 "핏 세뇨르! 비바 산토 니뇨!(Pit Senor! Viva Sto. Niño!)"를 외친다. 누구든 이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춤을 출 수 있으며 세부 시립 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되는 폐막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 ❺ 파낙벵가(Panagbenga) 축제 / 2월 넷째 주 : 바기오시(Baguio City)

소나무의 도시 바기오의 꽃철이다. 모두 뛰어나와 거리 축제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절기이다. 바기오 주민들은 이때가 되면 일상에서 잠시 쉬며 시원한 날씨와 이 도시의 문화에 흠뻑 젖는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고지대의 다양한 꽃을 흉내 낸다. 꽃침대가 놓이고 파낙벵가 행렬이 벌어진다.

### ❻ 까아물란(Kaamulan) 축제 / 3월 3~7일
### : 부끼드논(Bukidnon)의 말라이발라이(Malaybalay)

필리핀 원주민 부족들의 문화를 기리기 위함이다. 부끼드논 시티의 말라이발라이 지역에서는 원주민의 음악과 춤이 곳곳마다 행해진다.

**❼ 모리오네스(Moriones) 축제 : 부활절, 마린두케(Marinduque)**

화려한 의상과 가면을 착용한 병사들인 모리오네스의 축제로 모리오네스가 롱기너스의 목을 베는 장면을 재연하는 순간 축제는 절정에 달한다. 롱기너스의 이야기가 서서히 펼쳐지면서 보악, 모그포그, 가산, 세 도시들은 하나의 무대로 탈바꿈한다.

**❽ 파히야스(Pahiyas) 축제 / 5월 15일 : 룩반(Lucban), 사리아야(SariaYA)**

"고귀한 봉헌"의 뜻인 파히야스는 수호성자 산 이시드로 라브라도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축제이다. 온 마을과 집들이 꽃모양, 샹들리에 스타일의 키핑(Kipping : 쌀로 만든 무지개색의 납작한 과자)으로 화려하게 장식된다. 민속 예술품을 전시하고 성자를 축복하는 퍼레이드를 펼치는데 축제에 참여하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❾ 파라다 앙 레촌(Parada Ng Lechon) 축제 / 6월 24일**
**: 바탕가스(Batangas)의 발라얀(Balayan)**

각종 모양을 한 통돼지구이(레촌)의 행렬과 침례교도 세인트 존(St. John)의 향연으로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우비를 걸치는 등 재미있는 치장을 한 참가자들이 가장 인기 있는 음식 '레촌'을 소개한다. 마치 침례교의 세례의식처럼 서로 물을 끼얹고 잔치를 벌인다.

**❿ 판타도스(Pantados) 축제 / 6월 29일 : 타클로반시(Tacloban City)**

선사시대로 돌아가 보면 타클로반의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문신은 용기의 상징이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문화 행사로 되살려 판타도스라는 거칠고 색다른 축제가 되었다. 도시의 주민들이 고대 전사를 흉내 내어 바디 페인팅을 하고 격렬한 북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장관을 연출한다.

**⓫ 산두고(Sandugo) 축제 / 7월 넷째 주 : 딱빌라란시(Tagbilaran City)**

산두고는 보홀의 추장 시카투나와 스페인 정복자 미구엘 로페즈 데 레가스피 사이에 맺어진 '피의 혈맹'으로부터 유래됐다. 관광객들은 축제에 참가하고 보홀의 경이로운 초

콜릿 동산과 하얀 모래해변을 방문한다.






01 02 **01, 02** 산두고 축제

### ⓬ 카다야완 사 다보(Kadayawan sa Dabaw) 축제 / 8월 첫째 주 : 다바오시(Davao City)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가장 큰 축제로 이 지역에 사는 여러 부족들의 전통 음악과 춤, 놀이, 민속 예술품들을 경험할 수 있다. 비옥한 다바오에서 생산되는 열대과일과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난초 왈링왈링(Waling-waling)같은 이국적인 꽃의 축제이다. 축제 기간 동안 월드 뮤직 페스티벌과 다바오 리버 페스티벌, 토속 악기 공연, 민다나오 전통 춤 축제, 라이브 밴드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들이 준비된다.

'카다야완'은 현지어로 '삶의 찬양'이란 뜻으로 1988년 '카다야완 사 다보'라는 공식 명칭을 얻었다. 축제의 천국인 필리핀에서도 대표적인 축제로 손꼽히는 행사다.

### ⓭ 마스카라(Masskara) 축제 / 10월 셋째 주 : 바콜로드시(Bacolod City)

마스카라는 군중이라는 뜻의 '마스(Mass)'와 스페인어로 얼굴이란 뜻을 지닌 '칼라(Carl)'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다. 1980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바콜로드시의 가장 큰 연례행사로 축제기간 내



마스카라 축제

내 비사야 전 지역의 주민들이 바콜로드 광장에 모여 논스톱으로 축제를 즐긴다. 축제의 상징인 '웃는 얼굴(Smiling mask)'는 항상 웃으면서 지내는 행복한 기운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다. 삶과 즐거움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담겨져 있다.

마스크와 화려한 의상들로 꾸민 퍼레이드가 압권이며, 길거리 댄스, 마스카라 미인대회, 푸드 페스티벌, 콘서트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 ⓮ 페나프란시아(Penafrancia) 축제 / 9월 셋째 주 토요일 : 나가시(Naga city)

페나프란시아 페스티벌은 9월에 비콜 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크고 중요한 축제이다. 축제기간 동안에는 곳곳에서 시장, 미인대회, 군인들의 퍼레이드와 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열리는 나가강 수상 퍼레이드이다. 비콜 지역의 수호성인인 성모 마리아 페나프란시아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종교적인 축제이다.

### ⓯ 잠보앙가 헤르모사(Zamboanga Hermosa) 축제 / 10월
### : 잠보앙가시(Zamboanga City)

이 행사는 잠보앙가시를 수호한다는 성인 '누에트트라 세뇨라 델필라'를 찬양하는 행사로 이 기간 중에는 여러 종교의식과 문화행사, 전시회 및 미스 잠보앙가 선발대회가 열린다.

### ⓰ 라 나발 데 마닐라(La Naval de Manila) 축제 / 10월 둘째 주
### : 퀘존시(Quezon City)

매년 10월의 둘째 주 주말에 열리는 이 축제는 매트로 마닐라의 퀘존시의 주요 거리에서부터 도밍고 교회까지 행렬이 진행된다. 이 축제는 1646년 독일 약탈자들과의 해전을 기리는 축제이다. 또한 이 축제는 팡팡가 주의 앙헬레스에서도 열리기도 한다.

#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 1. Phil 봉사단과 교류

### ❶ 셰어링 세션(Sharing Session) 참가

현재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사야 및 민다나오 지역 단원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현재 활동상황, 각자의 생활상 등의 교류로 보다 나은 활동을 위한 모임이 매년 열린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필리핀 현지 봉사단을 포함한 30여명이 모여 2박 3일 동안 행사가 진행되었다.




셰어링 세션

### ❷ 자이카(JAICA) 단원들과 음식 나누기

현재 보홀의 도시인 타그빌라란 시티(Tagbilaran City)에는 자이카(일본) 단원들이 6명 활동하고 있다. 같은 도시에 살다보니 주말에는 함께 모이는 날들이 많다. 모여서 외식도 하고 커피숍도 가고 영화도 보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 각자 음식을 가져와 나눠먹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못하지만 타국에 나와 활동하는 같은 자

원봉사자로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많은 많다. 이러한 교류는 2년 동안 봉사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2. 그럴 수 있어~

### ■ 아~ 오늘도 문 닫았구나.

휴일인 줄도 모르고 학교를 갔다가 굳게 닫힌 학교 정문 앞에서 황당했던 적이 가끔 있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아 섭섭한 것 보다는 열심히 준비해간 학습지들이 아이들의 손으로 즐겁게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더 섭섭할 때가 많다. 하지만 그럴수 있어! 우리 애들도 쉬어야할 때가 있어! 학교 사정이 바빠서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럴수 있어! 이럴 때 엎어진 김에 쉬어가듯 학교 주변도 좀 돌아보고 길에서 맛난 간식도 하나 입에 물고 하루를 나를 위해 놀아보자!

뭐든 생각대로 된다는 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한다면 즐거운 시간들로 바뀌어 진다는 것. 항상 잊지 말고 이런 날들도 즐기자!

### ■ 거짓말쟁이 대학 총장님

우리 대학 총장님은 캠퍼스 4개의 총장이다. 저녁 식사 대화 중 총장님께서 다른 캠퍼스에 같이 가자는 제의를 하셔서 그 기관에 KOICA 단원도 있고 해서 인사도 나눌 겸 쾌히 그렇게 하겠노라고 승낙을 했다. 며칠 뒤 가는 날이 되어 약속시간인 새벽 5시에 학교 관사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비서에게 물었더니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 내일 새벽 5시에 가게 되었다고 하여 다음날 또 기다렸는데 또 오지 않았다. 코워커를 통해 정중히 항의(?)를 하니 내일은 꼭 갈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 다음날 새벽부터 출발 준비를 하고 약속시간에 나가니 조금 뒤 총장 운전기사가 나왔다. '이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총장님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였다. 3시 30분에 내방에 와서 노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아 그냥 갔다는 것이다. 인사치레로 한 얘기에 단번에 승낙한 나의 실수! 항상 세 번은 정중히 거절하는 필리핀 관습을 그 땐 알지 못했다.

### ■ 내가 학교 선생님을 해고하다니...

기관에 파견되어 처음엔 월 2회 공개수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수업을 맡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수업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코워커에게 물어 보니 담당 교사가 나로 교체되고 그 선생님은 해고 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이후 내가 수업에서 보조교사를 맡으면서 해고된 선생님을 다시 나오게 하는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오해를 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실 지금도 학생들의 수업을 하기위해 학과에 가면 나를 보는 선생님들의 눈빛이 곱지 않다.

### ■ 20대의 봉사 단원에게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한국에서는 상사의 오더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든 해당 기한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현실은 한국과 많이 다르다. 마마야(Mamaya, 나중에)라며 기약 없이 기한이 늘어나기도 하고, 약속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이 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단원들이 파견되는 곳에는 대형몰이 없는 경우가 많아 물건을 구입할 때 일일이 찾아야하는 수고로움이 있다. 사람을 찾아 만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봉사활동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후 여유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필리핀은 단원이 많은 만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마음의 체로 걸러내야 할 것이다.

'봉사활동'이란 소명의식으로 낯선 곳에 왔지만 이 또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지금 필리핀에 나를 던져 놓은 것 역시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면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이미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안의 힘으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자신만의 인생 퍼즐을 멋지게 완성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 3. 센베단원 활동 수기

■ **나의 티칭 모토는 '즐겁고 행복하게'** | 홍의표(38기)다바오 시티, 한국어

나의 임지 '다바오 한-필 직업훈련원'은 2005년 KOICA에서 건립한 직업훈련원으로 바다가 보이는 구릉에 위치해 있다. 다바오가 있는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은 남한의 면적보다 약간 작은 땅으로 '약속의 땅'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곳에서 1년 과정의 11개 학과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양과정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임지 부임 한 달 후, 신입생다운 행복하고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학생들이 내게로 왔다. 하나님은 교사에겐 교사의 눈을 주시는 것 같다. 내 학생이 되는 순간 언제나 그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니 말이다. 유쾌하고 순수하며 심각한 것은 좋아하지 않는 그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의 티칭모토는 '즐겁고 행복하게'이다. 1년이 즐겁고 행복하게 흐르는 사이, 나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1년 동안 함께 했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학생들을 맞이했다. 올해는 수업도 더 늘어났고 수업을 맡은 학생들도 늘어나서 부임 후 어느 때 보다 바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더욱 빠르게 시간이 흐른다. 사실 이 시간은 내게 있어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다.

그러나 이제 겨우 십대 후반인 학생들의 고단한 삶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내 기준에서 볼 때 지나치게 낙천적인 모습, 쉽게 현실과 타협하고 포기하는 그들을 보며 안타깝고 의식화 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도 있다. 때로 학생들에게 KOICA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해주며 '아름다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겠느냐고 묻는다. 내 말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밝은 얼굴로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예!"라고 대답하는 이 아이들에게, 나의 역할이 한국어를 한 자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서서 사랑과 소망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그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 ■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배려…

| 정동영(37기) 이리카 시티, 컴퓨터

나는 마닐라에서 버스로 10시간,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이리가 시티라는 곳에서 KOICA 해외 봉사단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산 어거스틴(San Agustin) 초등학교에는 선생님이 20명, 아이들이 약 700명 정도 있다. 비록 학교 시설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있으나 내가 처음 본 우리 학교의 모습은 한창 뛰어노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적합한,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모니터 3대로 첫 수업




새롭게 만들어진 컴퓨터실

나는 시골초등학교의 첫 외국인 컴퓨터 선생님으로 왔다. 처음 도착했을 때 학교에는 컴퓨터가 달랑 2대 있었다. 그리고 정규과목으로 컴퓨터 과목은 있지도 않았다. 컴퓨터 과목이 없으니 컴퓨터 수업을 할 공간이 있을 리가 만무했다. 모든 것이 처음 부딪혀 보는 문제였다. 고민 끝에 도착하자마자 지원금을 신청하여 컴퓨터 한 대와 모니터 분배기를 구입해 모니터 3대로 이론수업을 가르쳤다. 정규 수업이 아니어서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였고 교장실 한 편에 좁지만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공간이 좁은지라 한 반의 아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40명 정도가 되는 한 반을 4개의 그룹으로 10명씩 나누었다. 이렇게 나는 수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두 학기에 해당하는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4, 5, 6학년 아이들을 다 가르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대부분 컴퓨터를 처음 접해본다. 그래서 그런지 매 수업마다 아이들은 나의 서투른 현지어와 영어에도 불구하고 내 말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주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응해준다. 이러한 초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여러 가지로 나에게 주는 유

익이 많다. 순수한 아이들과의 생활을 통해 다시금 얻게 되는 깨달음도 많으며 사랑스런 아이들 때문에 단조로울 수 있는 일상생활이 즐겁고 활기찬 생활로 변화 되는 것을 경험한다.

나는 이곳에서 '봉사'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솔직히 나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밥 굶을 걱정이나 돈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고 산다. '이렇게 걱정 없이 사는 내가 돈이 없어 아이들을 학교에도 못 보내고 하루 생활비 벌기도 빠듯한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을 여기서 사는 2년 동안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본다. 안타깝지만 배고픔은 굶주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지금도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이해하진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배운다.


카메라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은 내가 주는 막대사탕 하나에도 고마워하고 내가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컴퓨터실을 만들어 주는 것에도 참으로 고마워한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고마워하는 마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곳에 있는 이유가 이곳에서 아이들을, 또 이 곳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사랑하면 다름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배려하게 되는 것 같다. 처음엔 내가 외국인이고 봉사단원이기에 내가 먼저 배려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슴 한 구석에 있었지만 이제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니 내가 이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살면서 가장 크게 배우고 있는 것이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름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기쁨, 슬픔을 나누며 지내는 것. 그것 자체로 여기에 온 목적은 충분히 이룬 것 같다. 남은 기간 새롭게 지어진 컴퓨터실에서 아이들, 선생님들과 더 놀아야겠다.

## KOICA와 함께 발전을~~! | 김경민(39기) 탈리사이 시티, 자동차

해외봉사단 국내 훈련을 마치면서 열려있던 마음을 가지고 필리핀에 온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1년이었다.

이곳은 네고스 옥시덴탈(Negos Occidental) 섬 탈리사이 시티(Talisay city)의 CHMSC(Carlos Hilado Memorial State College)이다. 주립대학이라고 하지만 비교할 대상이 없을 만큼 굉장히 낙후된 시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해가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다. 그저 고철 덩어리를 수업 자재로 사용하면서 기초 수준의 점검과 수리 원리만을 배우고 가는 학생들과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전자제어방식의 차량보다는 구형 기계식 엔진방식이 친근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전자제어방식을 설명하고 환경과 안전을 이야기해도 그저 듣기만 할 뿐 관심을 가지진 않았다. 매연을 뿜으며 다니는 지프니와 트라이시클이 대세인 현지에서는 돈이 되는 일이 아니면 그저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이었다. 무모한 시간이었다. 어려운 생활형편 때문임을 잘 알기에 이해가 되었지만 이쯤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학교측과 협의를 하고 학교선생들을 설득해서 전자제어 차량 실습실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곧바로 구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학교측 분담과 KOICA 분담을 나누고 합의 과정에서는 쉽게 진행이 되던 현장 사업이 실 계획은 진행되지 않아 수개월을 기다리기도 하며 1년을 보냈다. 이제 간신히 현장 실습실이 만들어지고 현장물품이 발주되면서 곧 시작될 새로운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한해 많은 사람이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하고 오염과 불편함이 삶에 있어 후순위가 된 필리핀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만큼 이들의 삶에 바탕이 될지는 모르





겠다. 그러나 지속적인 KOICA의 지원이 함께 할 것을 알기에 부족하나마 오늘도 이곳 CHMSC에서의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다.

### ■ 필리핀 특수교육 들여다보기 | 신한나(39기) 안티크 시티, 특수교육

안티크 스페드 센터(Antique Sped Centers)는 영재들과 장애아동들을 교수하는 공립초등 특수학교이다. 한국의 특수교육기관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지만 통합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6학년의 영재아동 1학급과 유치부 1학급, 그리고 단원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학교 내에 각 장애영역별로 클래스가 있고 청각장애는 유치부, 1~3학년, 4~6학년까지 3학급, 그 외 시각장애, 정신지체 반은 각각 2학급, 학습장애 1학급으로 구성되어있다. 청각장애를 제외한 장애아동의 학급구성은 학습 수준별로 반을 구분해서 각 장애영역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업 참관 및 관찰을 통해 수업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결정한 후 교장 및 담임선생님들과의 협의 후에 오전은 정신지체반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지도를, 오후는 청각장애반(1~3학년)의 학생들에게 수학, 미술, 리듬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아이들의 언어, 환경, 문화에 맞게 수업자료를 수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자료들이 미흡함에도 열심히 따라 와주는 아이들의 열정이 무척 인상 깊다.

현재는 영재반과 비교해 열악한 교내 장애아동들의 교실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재교구 지원을 위한 현장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으로부터 교재교구와 교실 가구들을 받은 뒤에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현장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Love


4th Recognition
and
10-2011




ANTIQUE SPED CENTER
SUWAN NG WIKA

# 제작진 소개



■ **이름 : 김경민**

• 활동 분야 : 자동차

• 활동 기관 : Carlos Hilado Memorial State College.
Talisay City, Negros Occidental.

• 한마디 : "시간" 진짜로 빨리 지나가요.. ㅎㅎㅎ
게으름 피지 맙시다.



■ **이름 : 김빛나라**

• 활동 분야 : 특수교육

• 활동 기관 : STO .NINO SPED CENTER. in Tacloban

• 한마디 : 내가 붓이 되어 2년 동안 필리핀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완성 될까요? 머릿속에 미리 그려두었던 그림만큼은 그릴 수 없을지 몰라도 마음의 물감들을 많이 사용하여 아름답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오신 지금. 당신은 벌써 아름다운 붓으로서 마음의 물감들을 쓰고 계시네요. 힘내세요. 아름다운 세상의 그림. 그 처음인 필리핀에서.



■ **이름 : 김현정**

- 활동 분야 : 컴퓨터디자인
- 활동 기관 : Botong Cabanbanan National High School. Oton. in Iloilo
- 한마디 :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되어준 2년의 생활!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세요! 설렘, 긴장, 기대 그리고 처음이기에 누구나 느끼는 약간의 두려움…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파이팅(FIGHTING)!



■ **이름 : 조효인**

- 활동 분야 : 특수교육
- 활동 기관 : Eugenio S Daza Pilot Elementary school
- 한마디 : 2년동안 품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힘쓰시길 바래요. God bless you ◠‿◠



■ **이름 : 최혜진**

- 활동 분야 : 특수교육
- 활동 기관 : Tagbilaran City Central School SPED Center. in Bohol
- 한마디 : 제2의 고향, 제2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KOICA 단원이 되신 모든 분들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참고문헌 및 자료


■ **여긴 필리핀**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 필리핀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한국 수출입 은행 발행(국회전자 도서관)
- 필리핀. 양승윤 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체험@필리핀현장**

- 트로이의 필리핀 정보. http://cafe.naver.com/tpit
- 필리핀 관광 · 교육 정보지(Phil so good)
- [세부] 진정한 자유여행을 원하는 카페. http://cafe.naver.com/realfreetour
- 필리핀 교민 연합 뉴스. http://www.uknnews.com/

■ **Phil 좋지 아니한가**

- 필리핀 관광청 홈페이지. http://www.wowphilippines.or.kr/
- 디스커버리 투어. http://www.discoverytour.co.kr/
- 위키백과. http://en.wikipedia.org
- 트로이의 필리핀 정보. http://cafe.naver.com/tpit
- 필리핀 현지 여행사. WiBi Tour. http://cafe.naver.com/withjollibee

■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 인도 관광청. http://www.incredibleindia.co.kr/
- 홍콩 관광청. http://www.discoverhongkong.com/kor/
- 싱가폴 관광청. http://www.yoursingapore.com/
- 인도네시아 관광청. http://www.tourismindonesia.co.kr/
- 캄보디아 관광청. www.tourismcambodia.com/
- 베트남 관광청. http://www.vietnamtourism.com/
- 태국 관광청. http://www.visitthailand.or.kr/

홍보자료 WFK모집교육 2011-29-240

해외봉사단원이 쓴 **봉사활동 안내서 / 필리핀편**

| | |
|---|---|
| 발 행 | 2011년 12월 16일 |
| 편집 겸 발행처 | 한국국제협력단 WFK모집교육팀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461-833 |
| 전 화 | 1588-0434 |
| Website | http://kov.koica.go.kr |
| 디자인 / 인쇄 | (주)예원기획(02-745-8090) |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6469-068-0 13320 〈비매품〉

홍보자료

WFK 모집교육 2011-29-240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1588-0434 Fax. 031)740-0662
http://kov.koica.go.kr